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2014.8

연구자명 : 김경희(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객원연구위원)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목 차 -

1. 서론	3
가. 연구목적	3
나. 연구방법	6
다. 기대효과	10
2. 1990년대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성과와 쟁점	12
가.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평등’ 과 한국여성운동의 위기론	12
나.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	15
다. 생활정치와 지역사회, 풀뿌리여성운동	25
라. 여성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운동의 모색	34
마. ‘생활정치-지역사회-풀뿌리운동-여성주의-차이의 정치’ 의 공존과 연대	40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현황과 성과평가	43
가. 참여단체와 수행사업의 현황	43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평가	54
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우수사례 소개	80
가. 우수사례의 선정과정	80
나. 우수사례의 주요내용	83
5. 여성운동의 미래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과제	102
가. 성평등사회를 향한 여성운동의 과제	102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과제	106
참고문헌	127
부록	131

- 표 · 그림 목차 -

〈표 1〉 면접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7
〈표 2〉 면접조사의 주요내용	8
〈표 3〉 여성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1983-2012)	17
〈표 4〉 한국의 생활정치운동 유형	27
〈표 5〉 연도별 참여단체의 수	43
〈표 6〉 연도별 지역별 참여단체의 수	44
〈표 7〉 연도별 지원금액별 수행사업의 수	45
〈표 8〉 연도별 참여단체의 자부담 규모	47
〈표 9〉 연도별 사업수행기간별 사업의 수	48
〈표 10〉 연도별 연속사업의 수	49
〈표 11〉 연속지원을 받은 사업(2010-2013)	49
〈표 12〉 연도별 사업유형별 사업수	51
〈표 13〉 연도별 사업대상별 사업수	53
〈표 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평가 지표	56
〈표 15〉 2013년 자유공모사업 평가기준	80
〈표 16〉 연도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파트너단체(2002-2013)	82
〈표 17〉 당해 연도 단체운영예산 파악을 위한 양식(안)	112
〈표 18〉 2013년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의 주제	115
〈표 19〉 연도별 기획공모사업(2011-2013)	116
〈표 20〉 연구진이 제안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개선안	117
〈표 21〉 한국여성재단 자유공모사업 신청서 변경안	119
〈표 22〉 한국여성재단 자유공모사업 서류심사 배점표 변경안	120
〈표 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수행절차(2013년 사업 기준)	122
〈표 24〉 자유공모사업 평가 기준 변경안	124
〈그림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55
〈그림 2〉 유형 1-사업담당자 중심형	58
〈그림 3〉 유형 2-회원 참여형	58

1. 서론

가. 연구목적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2002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여성운동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재단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했던 단체의 수는 총 222개이며 지원사업은 연대사업을 포함해서 총 222개 사업이다. 지원금은 단체 평균 1천만원 선으로 총 지원금은 24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여성복지사업’으로 구분되었으나, 2010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성평등 의제(gender equality agenda)와 여성복지 의제(women’s welfare agenda)를 통합하면서 재단의 핵심 목적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한국여성재단의 비전은 “성평등과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 및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있다. 또한 재단의 핵심가치는 평화와 평등, 상생에 두어져 있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재단의 핵심가치인 평등을 실현하는 장(長)이면서 재단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여성활동촉진사업, 문화사업, 국제여성활동촉진사업, 조사연구정책개발사업 등으로 이것은 한국여성재단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서 기관의 비전을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은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들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여성운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다. “한 성에 의해 다른 한 성이 일방적으로 억압되어 온 것에 대한 저항과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장미경, 1996: 15),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성불평등’적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집단적 노력이나 정치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김영화·손지아, 2004: 84)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는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더라도 성차별 해소, 여성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으며 가족 복지를 우선적 가치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남성들이 다수 참여하는 시민단체들 중에는 성평등 가치에 공감하고 여성주

의와 연대하는 단체들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여성운동에 대한 정의는 시대변화를 고려해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더라도 여성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있는 가하면 오히려 가족주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반여성주의적인 활동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젠더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12년간 지원해 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여성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특정 이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자유공모사업은 참여 여성단체들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고 기획공모사업은 해당시기 한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재단에서 발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결과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그 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영향력을 살피고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와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한국의 여성운동이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여 향후 이 사업의 전개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난 12년간 한국여성재단이 수행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사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여성운동의 과제와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살펴보고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았던 222개 여성단체들이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지역별(수도

권, 충청권, 경상권 등 권역별), 지원규모액별, 사업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파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여성운동의 '지역적 성장'과 '성평등 이슈의 확산'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난 10여년간 수행해 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통해 이 사업 본래의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①다양한 모금활동을 통한 기금모금, ②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공모 ③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선정 ④사업지원 ⑤사업관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본연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 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의해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여성재단이 수행하는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비교하여, 시민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운동이 실천해 가야 할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정체성을 짚어보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여성운동을 둘러싼 정치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여성운동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 결성된 여성단체는 군사독재정부에 맞서 반(反)정부를 표방했으나, 1990년대 말 문민정부(1998-2002)와 참여정부(2003-2007)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제도권 정치의 핵심에 들어가거나 정치권력과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에 나타난 괄목할 만한 변화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인사들이 정부의 각 위원회와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단체 출신의 여성들이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에서 엿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들이 법령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기 시작하였다(김기선미, 2004). 이러한 진보적 여성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는 참여정부에서도 지속되었으나 MB정부에서는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 여성정책에서 가족정책을 중요시 했던 정부는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진보적 여성단체를 배제하였

고 보수적인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갖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변화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여성단체로 하여금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가 여성정책을 수행할 당시에는 여성가족부가 진보적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여성운동 제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의 여성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조순경, 2004; 오장미경, 2005).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재단인 한국여성재단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재단이 NGO로서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특수성을 밝히고 이 사업의 미래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이 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수집 및 문헌분석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총 222개 사업의 계획서 및 결과서 등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한국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여성운동과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논문 수집 및 분석,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설계한다.

2) 여성단체 활동가 심층면접 실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을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에 소재한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단체 활동가 총 21인을 면접조사하면서 사업참여 경험과 해당사업에 대한 여성단체의 요구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된 기획공모 주제 및 운영방식, 자유공모사업 지원범주와 운영방식에 대

한 여성단체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활동가로 사업 책임자인 단체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과 사업담당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였으며 여성단체의 활동년수는 최소 1년간 활동한 경우에서부터 20년 이상을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현 단체에 근무한 연수는 최소 1년에서 20년까지로 한 단체에서 20년간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모두 21명이고 여성이었다. 면접기간은 2014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루어졌고, 면접의 대부분은 단체 사무실, 스터디카페, 커피숍 등에서 이루어졌다. 1:1 대면면접을 하거나 1:2 대면면접을 하였고, 일부는 전화면접을 통해서 추가답변을 얻기도 하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 면접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사례번호	단체소재 지역	연령	역할	여성단체 근무 (활동)년수	현단체 근무년수	면접 일시	성평등사업 참여 년도
사례1	수도권	46세	사업책임	20년	3년	2014.4.10	2012
사례2	수도권	46세	사업책임	15년	3년	2014.4.10	2012
사례3	수도권	44세	사업책임	20년	20년	2014.4.8	2011, 2013
사례4	수도권	30세	사업담당	6년	6년	2014.4.8	2013
사례5	수도권	44세	사업책임	14년	14년	2014.4.14	2013
사례6	수도권	31세	사업담당	6년	6년	2014.4.14	2013
사례7	수도권	51세	사업책임	18	12	2014.4.15	2013
사례8	수도권	40세	사업담당	16	16	2014.4.15	2013
사례9	수도권	32세	사업책임	4년	4년	2014.4.15	2013
사례10	수도권	26세	사업담당	1년	1년	2014.4.15	2013
사례11	수도권	45세	사업담당	14년	14년	2014.4.3	2012, 2013

사례번호	단체소재 지역	연령	역할	여성단체 근무 (활동)년수	현단체 근무년수	면접 일시	성평등사업 참여 년도
사례12	수도권	43세	사업책임	14년	10년	2014.4.17	2013
사례13	수도권	29세	사업담당	3년	3년	2014.4.3	2013
사례14	중부권	53세	사업책임	17년	7년	2014.4.2	2009
사례15	중부권	49세	사업담당	20년	20년	2014.5.20	2012
사례16	호남권	34세	사업담당	6년	5년	2014.5.23	2011
사례17	영남권	52세	사업책임	15년	15년	2014.5.23	2013
사례18	수도권	40세	사업책임	10년	10년	2014.5.7	2013
사례19	수도권	40세	사업담당	5년	5년	2014.5.7	2013
사례20	수도권	45세	사업담당	3년	3년	2014.5.7	2012
사례21	수도권	32세	사업담당	7년	6년	2014.5.28	2011, 2012

면접한 내용은 녹음하였고 그 내용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과 이 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이었다.

〈표 2〉 면접조사의 주요내용

구분	조사내용	질문내용
인적사항	1)단체명 2)성별 3)연령 4)직위 5)단체 활동기간	-귀하의 소속 단체명/지역은?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귀하의 직위는? -귀하가 현 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귀하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참여경험	1)사업의 계획 (목표 설정) 2)사업의 수행 (목표 달성방법)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사업을 기획할 때 젠더이슈를 고려했는지? -사업의 목표를 누가 설정했는지? -사업계획서를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젠더 이슈를 어떻게 발굴하고 접목시켰는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시켰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사업 수행하면서 인력을 어느 정도 투입했는지, 그 인력은 어떻게 모집했는지? -사업 수행하면서 지역의 타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어떠한 네트워킹

구분	조사내용	질문내용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개선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했는지? -사업 수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사업수행하면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3)사업의 평가 (목표 달성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가 제기한 젠더 이슈가 법제화,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업수행하면서 회원들의 활동역량과 단체의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업수행결과 지역의 타 여성단체, 시민단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이후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한 후속작업이 있었는지?
	1)재단의 성평등 사업의 기획 및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 이원화 방식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매년 기획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 또는 선정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사업 공모, 홍보방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공문, 인터넷 등) -사업계획서(신청서)양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2)재단의 성평등 사업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사업을 수행하면서 재단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있었던 지원방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성평등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재단과 단체가 어느 정도의 재원분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3)재단의 성평등 사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의 사업평가방식(우수단체 선정,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단의 사업평가기준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평가기준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3)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여한 여성단체 활동가, 교수, 연구자로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개선방향과 여성운동의 전망에 관해 자문을 받아 연구에 활용하였다. 2차례 회의가 있었고 회의명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다.

□ 1차 자문회의

-주제 : 지역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일시 : 2014. 5. 23(금) 13:00

-장소 : 한국여성재단 4층 회의실

-참석자 :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남궁미(광주 언니네), 박기남(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이해리(한국여성재단 팀장), 연구진

□ 2차 자문회의

-주제 : 한국여성운동의 미래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개선방향

-일시 : 2014. 6. 14(토) 10:00

-장소 : KTX 서울역내 회의실

-참석자 : 조홍식(서울대 교수), 박영미(부산여성회 회장), 김고연주(중앙대 강사), 연구진

다. 기대효과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던 222개 단체가 수행한 사업을 연도별, 사업유형별, 사업대상별로 파악하여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관계를 이루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해 온 여성단체들의 참여과정을 사업의 계획과정, 수행과정, 평가과정별로 분석함으로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내용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의의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난 12년간 수행되었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성과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각 사업의 의의를

한 줄의 제목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한국여성재단의 기부자들 또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쉽게 이 사업의 의의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아울러 우수사례를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이후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할 때 일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해 온 여성단체들이 1,000만원 수준의 적은 예산으로 이루어냈던 수많은 성과들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연구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미래 여성운동을 전망하면서 사업의 향후 방향과 방법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990년대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성과와 쟁점

가.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평등’ 과 한국여성운동의 위기론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여기서 ‘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어떤 활동이 성평등을 증진시키는가?’하는 질문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성평등(Gender Equality)의 정의에 관한 질문은 단일하고 고정된 답변으로 충족될 수 없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는 ‘성평등 개념 역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평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성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규정해가야 한다.

성평등의 정의가 무엇이든 그것의 실현은 다차원적인 실천을 요구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향상 노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억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집단과 개인의 의식과 조직의 문화를 바꾸어나가려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사회적 이슈를 던지는 실천의 핵심은 여성단체의 활동, 정확히는 여성운동(Women’s Mov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성평등사회를 향한 사회적 실천의 동력으로서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의 피해자로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정치적 실천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체가 된다고 해서 모두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성운동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질서에 대항하여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사회운동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체계에 대한 도전의식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갖는다(조형, 1984). 따라서 그것은 여성주의운동(Feminist Movement)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명백한 여성주의적 의식(Feminist

consciousness)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체계에 대한 비판과 전복을 추구하는 하는 정치적 실천이 여성주의운동이라면, 여성운동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는 자기정체성(self-identity)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실천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성운동이 여성과 남성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려면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평등한 젠더체계의 해체 없이 여성과 남성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그동안 법과 제도상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해 싸워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회구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국가는 이를 ‘법’의 이름 아래 정당화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강렬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여성들은 법과 제도상의 모순을 찾아 수정해 왔고, 2014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성평등사회를 향한 법·제도의 개혁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기회구조의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노동시장과 가족, 정치적 영역에서 직면한 격차를 줄이는 데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여년 간 노동시장 내 고용율과 임금, 승진체계, 퇴직체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거의 좁혀지지 않았고, 2014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2/3가 여성이며,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 임금의 6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발생이나 피해 정도에서도 상황이 크게 호전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법과 제도상의 개혁’이라는 형식적 평등의 달성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갈래의 여성운동은 무엇이 성평등인지, 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토론해 왔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치열한 자기성찰로 이루어진 이러한 논쟁은 성평등에 대한 구조적·상황적 정의(structural and situational definitions)를 도출하고 실천적 전략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성별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사회구조로서 젠더체계의 해체(구조적 정의)와, 각 시대적 조건 속에서 요청되는 성평등의 요건(상황적 정의)을 규명하고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여성운동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의식은 1990년대 말에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윤정숙(2004)은 1990년대 이래 여성운동은 “수많은 경험과 성과, 영향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실천, 빈곤한 운동이론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으며, ‘담론 부재’ ‘이론 없는 실천’ 속에서 활동가들은 ‘시급히 처내야 할 수많은 일’에 묻혀 있다’고 당시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김경희(2007)의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으로 명명되었으며,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형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탈근대적 이질적 공공영역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조주현, 2006; 황정미, 2006). 또한 1990년대 말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은 젠더거버넌스의 성격을 협력적 파트너십에서 서비스 대행체제로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나타났다(신상숙, 2011). 그 결과 2013년 현재 강이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과 안티페미니즘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성운동은 정체되어 왔고, 신자유주의의 소비자본주의 경향과 합작한 모호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징후가 만연하다”는 진단을 내리기에 이른다(강이수, 2013).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시민운동 중 가장 성공적인 운동의 하나로 평가되는 여성운동이 20여년이 흐른 지금 왜 이러한 위기론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 기여해 가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여성운동이 거두어 온 성과와 문제, 향후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흔히 진보적 여성운동과 보수적 여성운동, 또는 시민권(사회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개혁적·급진적 운동과 자유주의적 권리 향상 운동으로 구분된다. 또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운동을 구분하지는 주장도 있다(오김숙이, 2011). 이 글은 여성운동의 갈래 구분보다는 여성단체들이 ‘함께 또 따로’ 싸워온 운동의 목표와 전략을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¹⁾ 성

1) 1987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지형은 진보적 여성운동과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으로 나뉘어 있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세력은 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로 이루어졌으며, 자유주의적 여성운동세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인 직능단체로 구성되었다. 두 진영은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일시적 연대구조를 형성해 왔고, 호주제폐지, 군가산점제 폐지, 모성보호제도 개선, 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 등에서 연대와 공조를 형성하여 성과를 거두어 왔다(김경희, 2005).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흐름의 여성운동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게 되었고, 보수주의 정부는 자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여년 간 여성운동이 추구해 온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

1) 참여의 정치와 법·제도적 개혁

1990년대 이래 한국의 여성운동은 ‘영향의 정치’에서 ‘참여의 정치’로 이동해 왔다(오장미경, 2003; 김경희, 2006).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진보적 여성운동세력은 시민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조직을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 각종 법의 제·개정에 영향력을 미쳤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 자유주의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구축하며 전근대적인 법체계를 수정해 갔다. 이후 1990년대에 이르러 시민운동이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공공성(the public)의 영역을 재구조화해 가자 여성운동도 참여의 정치(politics of engagement)를 선언하고 여성을 위한 법과 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갔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여성관련 의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계기는 김부남 사건(1991)과 김보은·김진관 사건(1992)으로 1992년 여연은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처벌법안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1993년 보수여당이 제출한 안이었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여연과 여협(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비롯해,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갔다(<표 1> 참고).

주의 여성운동단체를 협력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두 흐름을 구분하기보다는 각 시대별 여성운동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 이르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정책담당관(1998)의 설치를 거쳐 여성부를 신설(2001)하기에 이른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2005) 성매매방지법(2004)을 제정하였으며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여성운동과 정부·여당 사이에 매우 밀착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 이 시기 17대 국회에 제출된 231건의 여성관련 법안 중 45건(19.5%)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었다는 사실은 관련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권수현, 2011). 이같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1995년 북경여성대회의 의제인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간 것도 이 시기이다. 성주류화란 성평등의 가치와 실천은 여성전담기구의 경계를 넘어 정부의 모든 부서와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수용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 성평등 실현이 여성전담부서만의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의 목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여성단체들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법의 제·개정,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라는 하드웨어적 변화를 넘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집행에도 동반하려는 인적 참여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 중 50% 여성할당, 지역구 의석 중 30% 여성할당제를 요구하고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후보 추천운동을 벌여나갔다. 그 결과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10%를 넘었고(14.4%), 여연 등 여성단체의 대표들이 국회의원과 장관 등 정부 부서와 정책기구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이같은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 IMF 구제금융시기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극복대책의 집행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참여자로 활동하였다. 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과 고용차별 상담 등 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서도 여성단체들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책의 기획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도 활발해졌는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요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 공청회, 연구프로젝트 등을 통해 여성의 요구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시키는 작업도 수행했다.

호주제 폐지는 이같은 총체적 여성운동이 낳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여성운동의 상황도 달라졌다. 2007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제도적 영역에서의 여성운동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정부정책의 파트너로서 진보적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맺어왔던 협력관계는 보수주의 권력의 통치 속에서 무너졌고 정부는 보수적 여성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대등한 파트너십이라기보다는 보조적 지원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보수적 여성단체가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여성운동이 반드시 진보적인 정치체제 아래서 더욱 쉽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정권이 여성친화적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여성운동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이다(권수현, 2011).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큰 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부 보수적 여성단체를 제외하고는 참여는 물론 영향력조차 크게 축소되어 왔다. 2008년 후반부터는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정책 수행과정에서도 여성단체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오은진, 2014). 그 결과 여성정책은 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본래의 방향에서 벗어나 여성특화정책으로 이해되고 주변화 되었다.

〈표 3〉 여성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1983-2012)

연도	여성관련 법안	여성정책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 전략
1983			·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한국여성개발원 설립	
1985	· UN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987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		·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위원 최초 임명	· 정무 제2장관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문화 등의 업무 포함)	

연도	여성관련 법안	여성정책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 전략
1989	· 남녀고용평등법 1차 개정			
1990	· 민법 제4편(친족), 제5편(상속)의 여성차별조항 개정		· 정무 제2장관실 (여성 관련 업무만 전담)	
1991	· 영유아보호법 제정			
1993	·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근로여성기본계획 수립 · 서울시내 9개 공고 여학생 입학 허용		
1995	·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	·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과제 발표	· 정무 제2장관실 세계화추진위 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WID
1996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1997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을 위한 법적기준 마련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6개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실 설치	GAD
1999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제대군인 가산점부여제 폐지 ·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			
2000	· 국회의원 비례직 여성할당 30% 도입 · 청소년보호법 제정			
2001			· 여성부 설치	

연도	여성관련 법안	여성정책	여성정책전담기구	여성운동 전략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책임관제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성주류화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제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로 축소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로 개편 	

자료: 조현옥(2002)을 중심으로 구성.

2)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평가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여성단체는 법·제도적 개혁에 주력했고 이는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규정되었다. 김경희(2005)는 Kriesi의 정의를 빌어 사회운동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유입이 안정되고 운동조직의 목적이 온건화되며 정책적인 행동양식이 관습화되고 이익중재를 위한 기존의 제도정치에 편입되는 것을 제도화라고 규정했다. 오장미경은 이러한 제도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했다(오장미경, 2005).

첫째,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활동방식의 증대로서 여성운동이 현행 법적 경계 안에서 펼치는 활동이 늘어났다. 여성단체들이 사단법인의 자격을 취득했고 활동방식도 과거의 집회와 시위 형태 위주에서 서명, 청원서, 성명서 발표와 법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와 로비 활동으로 바뀌었다. 둘째, 여성운동 이슈에서 법과 정책 등 제도 관련 쟁점이 늘었다.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 법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 그리고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정책 도입, 차별적인 제도의 폐지가 여성운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또 부녀행정을 여성정책으로 바꾸고 여성부 신설 등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해 나갔으며 성주류화를 위한 젠더가버넌스 체계도 구축해 갔다. 김경희(2001)는 이러한 여성운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친여성적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을 두고 국가페미니즘의 단초로 해석하기도 했다. 셋째, 정책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했다.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채택하도록 하는 전반적 과정에 여성운동은 깊이 개입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정부 조직 내 여성정책기구나 여성주의적 훈련을 받은 관료와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정책 제안은 정부에 의해 대체로 수용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여성단체들은 사단법인화를 통해 정부 용역 사업의 수행자 자격을 취득하고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넷째, 이처럼 여성단체의 정책 제안 기능이 확대되면서 여성단체 활동가의 역할도 변모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가 출신이 여성부 관료나 정부부서 여성정책 담당자로 진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 여성단체 임원이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아울러 여성단체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활동가들의 일상 업무도 프로젝트 실무자의 성격을 띠어 갔다. 다섯째, 여성단체가 정부의 상담과 서비스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성단체 업무 중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수주나 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위임받은 여성단체들은 여성대중의 조직화나 운동적 이슈 파이팅보다 서비스 제공과 행정 실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또 정부가 여성단체 업무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상도 나타났다(오장미경, 2005).

이같은 제도화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양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장미경은 제도화의 결과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사회구조가 더 가부장적이고 사회운동의 제도화 수준이 낮을 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보았다(오장미경, 2005: 26-28).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가부장적 관행이 보편적인 한국사회에서 운동의 대중화와 세력화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여성운동이 여성친화적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관련 행정기구를 수립하는 등 제도화 과정을 통해 성평등 이슈를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운동의 제도화 전략은 적절한 것이었으며 여성단체의 대표가 관료나 의원으로 진출한 것도 각 현장에서 여성주의를 확대시키고 여성운동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제도화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측면이나 제도화 수준에서 볼 때 운동이 제도에 포섭되기보다는 제도 내에서 운동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운동의 자율성을 견지한 채 여성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오장미경의 주장이다. 조현옥(2002)도 제도화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도정치에 참여하고 운동의 이슈를 정부와 정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본다. 여성운동의 이같은 제도화 전략의 결과 1990년대 이래 여성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었고 정부 내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혜숙(2013)도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이 서로 모순된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지역여성운동의 경험을 살펴볼 때 운동의 제도화는 여성의 조직화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평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왔다. 제도화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은 조순경(2004)과 윤정숙(2004)이다. 조순경은 2004년 총선여성연대가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와 여성후보 추천 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 이런 운동은 숫자상의 증가에 불과한 끼어들기식의 운동방식으로 여성운동의 새판짜기와는 무관하며 여성단체장의 정치 진출은 여성운동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떨어뜨려 단체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여성운동이 합법적인 국가기구나 제도 안에 한정될 경우 운동의 급진성과 진정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윤정숙은 제도화 전략의 결과 여성운동의 언어와 제도정치의 언어가 유사해졌고 활동가들은 자신이 운동가인지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의 하급직원인지 정체

2) 경남여성회의 경우 2005년부터 지자체와 민간재단으로부터 협력사업 지원 신청을 통해 여성정치교육, 여성리더십 강화, 씬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회원 교육과 활동가 의식강화를 지원해 왔다. 프로젝트 사업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정부나 민간재단의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이미지로 일반인에게서 공신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혜숙, 2013: 76).

성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윤정숙, 2004). 또한 여성운동으로서 상담 활동은 사회복지기능으로 축소되고 여성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남성중심적 해석과 운영으로 여성인권은 특수한 것으로 고립되었다. 점차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상의 개념, 언어, 정책 실행메커니즘을 따르게 되었고 법의 제·개정에만 몰입함으로써 운동의 협소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여성운동 의제는 탈정치화되었고 로비활동의 비중이 커졌으며, 제도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서 ‘알아서 조율’하고 ‘스스로 온건해지게’ 되었다. 자원과 권력을 가진 정부가 여성부 등 제도화를 통해 운동을 포섭해 감으로써 여성운동은 무력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김경희(2007)는 두 시각을 종합하여 운동의 제도화가 가져온 성과와 한계, 미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녀는 운동의 제도화와 국가페미니즘의 부상으로 인해 여성운동의 급진성이 약화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여성운동의 법제화 운동은 시대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제도화를 통해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여성권리를 선언했지만, 그 결실이 모든 여성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는 것이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법, 모성보호 관련 입법과 적극적 조치 시행 등의 성과를 낳았지만, 이런 권리와 평등이 전체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주로 공공부문, 정규직 여성들이 수혜자가 된 반면, 비정규직 여성과 주변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배제되거나 소외됨으로써 여성들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김경희, 2007: 122). 따라서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이런 법과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정책적 실효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그동안 보편적 권리 개념이 담아내지 못했던 계급성과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운동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김경희, 2007: 133-134). 이성애와 동성애, 성매매와 성노동, 낙태, 대리모문제, 난자매매와 불임시술, 기혼여성과 비혼여성,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노동자계급과 중산층 여성, 이주여성 등 다양한 여성의제를 다루어 가야 하며, 이것은 새로운 조직구성과 연대방식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고 보았다. 비정규직과 빈곤 등 계급적 차이와, 동성애, 낙태, 이주, 지역, 장애 등 새로운 불평등 패러다임을 정의하면서 여성운동의 다양한 과제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 신자유주의 시대 제도적 선택성과 젠더거버넌스의 위기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은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2000년대를 젠더거버넌스의 시대로 규정한 신상숙(2011)은 이명박 정부 이후 여성단체들은 배제의 위협과 영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가부장적 국가의 제도적 선택성(institutional selectivity)이 작용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정치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친화적인 운동을 수용하고 기성 제도와 어긋나는 운동을 배제하는 제도적 선택성을 지닌다. 위슬러와 기우니가 제시한 이 개념은 해당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운동의 요구는 법적 권한을 지닌 정부의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고 그 운동은 억압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신상숙은 이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 속의 관료적 행정조직은 제도적 선택성에 의해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제한해 왔다고 분석했다(신상숙, 2011). 거버넌스 체제 자체는 여성친화적인 것이 아니므로 거버넌스의 조정양식이 성평등 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합하는 해석들 중에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정치권력의 제도적 선택성으로 인해 2000년대 한국의 정부는 여성운동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기존의 가족주의와 피해여성의 구제라는 여성특화 된 정책에 집중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폐지와 여성부의 차별금지 업무 포기, 여성가족부로의 전환은 진보 정치의 프레임을 내세우는 정부에서조차 가부장적 사회의 제도적 관성과 성차별적 선택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여성정책기구인 젠더 이슈를 주류화함으로써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혁신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차별을 잇은 평등과 젠더의 의미를 숙고하지 않는 성주류화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호해졌다는 것이다(신상숙, 2011: 175). 그 결과 여성운동은 정부 정책의 동반자에서 협력적 대행자로 그 위상이 추락했으며 운동단체는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서비스기구로, 활동가는 서비스 실무자로 전락했다. 운동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운동은 정체성 위기, 성평등과 관련한 진보

적 프레임의 실종, 운동가 층원과 재생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위기적 징후에 직면하고 있다(이재경·김경희, 2012). 성주류화가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이라는 여성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과 같은 도구와 절차로 축소되어 온 것처럼(마경희, 2007), 성별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성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목표와 정체성도 도구적이고 상징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강이수, 2013). 또한 2000년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여성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고 여성노동력을 새로운 동력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고령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양산하는 여성노동력 동원 전략에 그쳤다(이재경·김경희, 2012). 결국 2000년대 여성정책은 성별 불평등의 원인 규명은 간과한 채 여성특화정책을 통해 여성 내 취약집단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복지정책에 머물렀다. 아울러 젠더거버넌스도 여성정책 의제의 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이 배제되고 전문가-관료주의 모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재경과 김경희(2012)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의 여성정책은 퇴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오은진, 2014).

여성운동의 위기는 여성운동과 정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 전반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반격(backlash)이 나타났고 안티페미니즘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강이수는 이를 포스트페미니즘의 징후로 해석하고 있는데, 대략 세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 첫째, 1970-80년대 여성운동이 가부장적 차별을 가시화하고 ‘약하고 차별받는’ 여성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다(장해성, 2011; 강이수, 2013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성의 권리 요구나 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성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폄하되어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적 반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이명호, 2011; 오은진, 2014).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둘째, 경제위기와 정치적 보수주의가 지속되면서 여성운동은 신가부장적 가치로 무장한 남성들,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청년세대들, 그리고 페미니즘을 혐오하거나 관심 없는 여성들, 새로 부상하는 견고한 보수주의와 여성 집단들과의 대치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장해성, 2011; 강이수, 2013에서 재인용).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젊은 남성세대의 취업률이 떨어진 시대에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젊은 세대들이 내면화해 온 경제적 불안정성과 피해의식, 여성 혐오가 복합된 현상이다. 셋째, 200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중 신자유주의의 소비자본주의적 경향과 결합한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이 늘어나고 있다. '된장녀' 담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성의 소비성향을 과도하게 풍자한 여성비하적 언설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여성은 더 이상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명호는 신자유주의적 소비대중문화가 부여하는 신판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이자 자본과 성차별주의가 결합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한다(이명호, 2011).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이제 자율성과 독립성, 정치적 급진성, 대중성을 상실하고 이익집단화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대행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서두원, 2012)이지만, 여성운동은 이제 젠더 이슈를 정부기관에 뺏기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으며 대중과의 소통 기능이 약화된 채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페미니즘은 죽음에 임박해 있고(임옥희, 2010), 여성운동은 변화된 운동의 지형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생활정치와 지역사회, 풀뿌리여성운동

1) 제도정치에서 생활정치로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은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그것의 설계와 집행에까지 관여해 왔지만 운동의 자율성과 대중성이 약화되는 결과에 직면했다. 또 보수 정당이 집권하면서 위계적인 정책 집행체계 속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다른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큰 확산성을 가진 흐름이 생활정치운동이다. 생활정치(Life politics)란, 제도정치와 대비 혹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가정·지역사회·직장 등 일상적인 생활영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스스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결정하여 정책·관행 및 제도를 바꾸는 모든 실천행위를 가리킨다(한국여성민우회 생강모임, 2001). 생활정치 개념은 서구사회에서 하버마스(Habermas), 기든스(Giddens), 벡(Beck) 등이 제시한, 국가와 대비되는 영역으로서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공론장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운동에서는 이 개념을 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 옮겨와 일상생활의 의제를 공공의 의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와 생활정치의 연관성에 주목한다(하승우, 2011).³⁾ 생활정치란 단순히 교육이나 보건, 주거 같은 생활의 문제를 정치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생활정치는 내 삶의 경험이나 의식과 분리되지 않은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삶 자체를 정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승우, 2011: 17). 여성주의 시각에서 생활정치란 생활세계에서 새로운 민주정치의 비전을 찾으려는 시도로 돌봄과 협력을 기반으로 살림경제를 담당해 왔던 여성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밀착적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제도정치와 연결시키려는 운동을 가리킨다(김영옥, 2009). 생활정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제도정치의 위계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진보적이며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정치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담지하고 있다(김경희, 2004, 2011). 생활정치는 사적인 문제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드러내며 쟁점화시키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구성과정이다.

장미경은 1991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고 보고 생활정치는 어떤 정치 이념보다도 페미니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생활정치는 사적인 것, 일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을 정치로 본다는 점에서 케이트 밀레트가 지적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성해방의 슬로건과 같은 관점을 공유하며,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강조하고, 생태주의, 탈물질주의적 삶의 양식, 돌봄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공공성의 지향, 공/사 이분법의 해체와

3) 하승우는 사회운동의 전략으로서 생활정치 운동에 접근하는 네 개의 관점이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관점은 하버마스나 기든스, 벡 등 서구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해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관점은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이나 생활자정치에서 시사점을 얻어 정치의 개념을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재구성하고 아래로부터 새로운 정치 주체가 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 번째 관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2008년 촛불집회를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건강과 생명, 먹거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네 번째 관점은 한국의 민주당이 생활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뒤 정당정치와 생활정치의 접점을 찾으려 했던 입장이다(하승우, 2009).

재구성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장미경, 2002).

하승우(2009)는 한국에서의 생활정치 운동을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했다. 첫째, 1991년 지방선거 실시와 더불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던 여성운동, 둘째, 일본의 생활자운동을 본받아 생활정치운동을 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운동, 셋째, 시민정치교육이나 시민정치참여의 한 방안으로 생활정치를 주장했던 한국 YMCA나 기타 시민운동, 넷째,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민운동이 그것들이다. 이 네 흐름은 운동의 목표에서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통의 제를 가지고 연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하승우, 2009: 41-42). 그러나 네 가지 운동 모두 여성단체나 개별 여성들이 각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생협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교육과 문화운동, 풀뿌리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여성은 중심적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정치 운동은 여성들이 키우고 가꿔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표 4〉 한국의 생활정치운동 유형

유형	사례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단체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특별사업본부 및 후원회 결성 (1994) -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지원 - 지방의회 10대 여성정책과제 발표(1995) · 한국여성민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시민모임 (1993) - 여성후보 6인 지방선거 당선. (1995), - 여성생활정치아카데미, 성인지예산 분석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여성후보 지원(2002), 주민의정감시활동 등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지자체대책위원회, 기초회의의원 여성후보자 지원(1991) 등
생협과 생활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아이쿱생협연합회>, <민우회생협>,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 생산자협동조합 · 의료생활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 원주, 인천 등 · 신용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의 <밝음신협>, 서울 <논골신협> 등

유형	사례
시민교육과 지방선거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M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정치교육센터와 시민정치운동본부 설치 (2005) - '생활정치아카데미' (2005) · 환경운동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자치위원회, 녹색 후보 당선 등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마을사람들, 성미산 주민들의 동네 만들기, 주민들에 의한 '동네문화' 만들기(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놀이터 만들기, 오이도 유적보존운동, 원주한지문화제, 부산 금샘마을의 아파트공동체운동) 등 ·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입법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시의 '안양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청주시 방과후 조례 제정운동, 부천시 어린이놀이터관리 조례 제정운동, 과천의 보육조례개정운동 등 · 지역정치 감시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백석동의 주민투표, 고양시 러브호텔 반대운동, 성남시 주민소환운동, 민우회 참여예산운동 등

자료: 하승우(2009)와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토대로 구성.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생활정치운동을 주도해 온 대표적 단체이다. 민우회가 전개한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정치세력화 활동, 생협 활동, 지방정부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활동 등이 있다. 민우회는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가족, 노동, 육아, 건강, 돌봄, 교육, 미디어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가부장적 관행, 성차별,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경우 제도 정치권의 실행을, 의식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 캠페인과 실천운동을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여성들의 정책요구 조사, 성인지 예산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여성주민들의 소통 채널을 확대해 왔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민우회는 일상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제기하고 제도정치와 대중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한편, 여성대중들의 정치적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

1989년 설립된 민우회 생협은 지역사회에서 주부를 조직하여 '사회주부'로서 여성운동의 주체로 성장해 나간다는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민우회 생협은 5인 이상의 공동체가 대표를 뽑고 공동체 대표들이 공동체협의회를 만들며 이것들이 모여 지역별협의회를 만들고 지부를 두어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를 실천했다. 따라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공동체 공급을 개별 공급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생협 매장이 지역사회운동의 공간이 되었다. 이같은 활동력을 기반으로 <민우회생협>의 지부인 <동북여성민우회>나 <남서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 <남부지역모임> 등은 노원구 소각장 문제,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운동,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 배출사건, 고양시 러브호텔 반대운동, 예산감시 네트워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여성민우회생협 15주년 기념사업위원회 2005; 하승우 2009에서 재인용).

여성들의 실천으로 시작되었던 생활정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계기로 확대된 촛불집회 때 전국적인 대중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사회운동 전반의 주목을 받았다. 참가자의 70%가 여성으로 추정될 정도로 세대와 계층의 경계를 넘어 폭넓은 여성 집단의 호응을 얻은 촛불집회는 인터넷 동호회 공간에서 전자적 관계 맺기와 소비자로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주체가 되었다고 평가된다(김영옥, 2009). 그리고 생태주의와 생명주의 등 탈자본주의적, 평화주의적 이념과 결합하여 새로운 대안적 가치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생활정치 운동사례>

◆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여성운동

▷ 성(性)인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각 지역별로 회원들이 주축이 된 생강모임(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서, 지역통계 등 자료 수집에서부터 예산과 정책분석까지, 그 결과로 지역여성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 지역여성 과제를 개발

지역별 여성정책 및 예산 분석을 실행합니다.
 지자체 여성정책 욕구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여성관련 모니터 작업을 합니다.
 지역별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여성정책과 예산확대를 위한 의회방청,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 제안서 보내기 등의 대응활동을 합니다.

▷ 생활 속에 뿌리를 둔 다양하고 활기찬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내 몸의 주인은 나], [평등가족 실천프로그램], [성교육/성폭력추방], [지역여성을 위한 건강 축제] 캠페인 등 우리 생활 속의 가장자리적이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바꾸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평등한 명절과의 만남 “웃어라, 명절” 캠페인

명절문화와 명절노동에서의 여성차별과 소외, 극복 방안을 생활지침으로 제시하고 온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명절문화형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주요 사업 소개 “반성차별”
http://www.womenlink.or.kr/about_03_07.php)

2) 지역여성운동의 모색

생활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은 지역사회이다.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반성이 심화되면서 지역은 여성운동이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지역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권력과 자원의 불균등구조로 고통 받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이며, 이것은 여성운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운동이 한국여성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강인순, 2007)에서,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관습에 얽매어 있고 성차별은 지속되고 있다는 자성(自省)이 지역여성운동 연구자들 사이에서 확대되어 왔다. 중앙-수도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력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은 총체적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비중앙-주변부-풀뿌리 일상의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허성우, 2006). 이처럼 지역에 대한 관심은 한국사회의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컬 액티비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지역은 한 국가의 하부단위로의 장소와 위치가 아니라 그 자체 독자적이고 부분적으로 독립된 정체성을 갖는 장소나 위치이자 전지구적 세계화에 맞서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정갑희, 2007; 이혜숙, 2013). 따라서 지역운동이 지구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고 이에 개입하여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중심적 젠더정치학이 지역-국가-지구적 수준의 다층적 정치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허성우, 2006).

지역여성운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계구조, 전지구적 불평등체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한 축으로 하는 동시에, 중앙 중심의 하향식 여성운동에 대한 도

전을 다른 축으로 삼는다. 안진(2013)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독자적인 여성운동은 성폭력, 가정폭력, 모성보호와 고용평등,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가족법 개정운동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적, 제도적 개혁에 집중되어 중앙에서 쟁점화한 운동의제들이 하향적으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따라서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 사실상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의 역량에 비해 중앙의 여성단체들이 주도해 온 제도화 전략은 지방여성단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광주지역의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에서 안진은 중앙에서 여연이 합법적인 참여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광주지역에서 여연은 지방정부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책집행과정에 결합할 수는 있어도 정책수립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본다(안진, 2013: 126-128). 또 이슈 파이팅에 치중하고 여성정책의 집행에 깊이 개입하는 운동방식으로 인해 지역여성운동은 과잉정치화의 위험에 직면해 왔다. 그러므로 제도화의 폐해는 지역여성운동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녀의 평가이다.

따라서 전국적 차원의 여성운동단체들이 전개해 온 사업을 지역의 회원 단체나 지부에서도 보편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안진, 2013). 여성운동단체는 지역사회의 시민들의 눈에 NGO라기보다는 준정부기구로 보였고 여성주의 이념에 입각한 대중적 호소력과 운동성을 상실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법과 정책의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혁명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주의의 확산은 미미하며, 의식과 제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여성운동이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 안진의 주장이다(안진, 2013: 12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전개되는 지역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착취 등의 제반 문제점들을 지역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극복하고 해결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운동”이다(강인순, 2007: 182).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실제 욕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운동의 의제를 개발하며, 지역여성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정치세력화를 추구해 나가는 운동이다(안진, 2013: 130).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은 생활정치 이념 아래 일상생활의 요구는 물론, 여성 인권, 노동, 보육, 여성주의 상담, 성교육과 성폭력 대응, 가족 상담과 가족폭력 대

응, 장애 여성 지원, 지방의정 관련 활동, 양성평등문화 조성운동,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기타 지역사회 특수한 여성과제에 대한 해결을 추구해 왔다(이송희, 2009).

생활정치운동과 함께 지역여성운동도 성장해 왔지만, 연구자들은 아직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논의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부산지역의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송희(2009)는 부산지역에서 1990년 간호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산여성회를 조직했고 2009년 8개 단체가 모여 부산여성단체연합을 창립했지만, 진보 여성운동이 더 이상 진보성을 갖지 못하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여성주의 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약하고 빈곤여성, 미혼모, 여성가장, 여성노인 등 소외여성층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으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명망가 중심의 조직으로 남아 있는 곳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또 여성운동단체 사이의 연대가 부족하며 여성운동 세대교체도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지역 여성운동을 연구한 안진(2013)은 지역여성운동은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 선거 대응, 반성폭력운동에만 적극적일 것이 아니라 지역여성운동의 중장기 비전과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또 지역 내 여성운동조직 간의 연대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도 지적한다. 경남지역의 여성운동을 연구해 온 이혜숙(2013)은 지역은 토착지배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들이 지방정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 변화가 어렵다고 보고, 토착지배세력과 지방정부 사이의 제도적 선택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또 그녀 역시 지역 내 정치적 사회적 성향이 다른 여성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에 비해 마산창원지역의 여성운동을 연구한 강인순(2009)은 이 지역 여성운동단체 중 공단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노동문제를 설정하고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여성주의 운동성은 강했지만, 지역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평가는 지역여성운동이 여성주의의 일반 과제와 함께 지역사회의 특수 과제를 발굴해 지역운동과 여성운동의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통합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울러 정치적 사회적 성향이 다른 지역여성운동단체 사이의 협력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풀뿌리여성운동

풀뿌리여성운동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여성운동과 대비하여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며 여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여성운동의 주요한 의제로 삼는다(이혜숙, 2013). 풀뿌리 여성조직은 소모임 활동과 다양한 일상활동을 통해 조직을 키우고 분화하며 물적 자원의 동원과 제도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 지역여성운동으로 세력화해 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풀뿌리여성운동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회원들이 여성운동단체의 주체로 참여하는 여성운동, 둘째, 개별 여성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여성들이 해당 문제 해결의 중심 주체로 참여하는 여성운동, 셋째, 평범한 지역여성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여성의 관점에서 변화시켜가는 여성운동이다(강경란, 2013). 여기서 이 세 요소는 풀뿌리여성운동의 공통 요소가 아니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은 그 합(교집합)으로 정의된다. 풀뿌리여성운동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 요소—여성주체, 당사자 여성 참여, 지역사회 변화운동—은 지역사회 여성운동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전여민회 사례를 연구한 김영남(2012)에 따르면, 여성들은 풀뿌리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주의 시민적 주체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서로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의 상호 보살핌 공동체를 지향하고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한 여성들은 마을을 변화시키는 여성 리더가 되며 자신의 생활세계와 정치의 문제를 연결하는 생활정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그러나 풀뿌리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운동이지만 여성주의 정체성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풀뿌리여성운동 활동가 중에는 여성운동이 반드시 여성주의운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풀뿌리여성센터 바람, 2013). 그들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운동은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독립적인 여성주의 의제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빈곤, 불안정한 고용, 한부모, 장애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체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사회운동과 분리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여성운동이란 “노동, 폭력, 차별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문제를 안고 사는 평범한 여

성들이, 주체적으로 살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나서서 힘을 모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자신의 삶을 둘러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으로 이해된다(풀뿌리여성센터 바람, 2013). 그래서 성평등 의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경우가 적지 않다. 끝없이 터지는 지역 현안들은 여성들이 여성주의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풀뿌리여성운동을 이끌어 온 박영미는 풀뿌리여성주의란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 사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이며, 여성 자신의 눈으로 삶과 세상을 읽고, 여성들의 활동과 힘으로 자기의 삶과 지역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관점과 태도이자, 성불평등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의식과 구조를 없애고자하는 의지와 결심”이라고 정의한다(풀뿌리여성센터 바람, 2013). 따라서 지역사회 여성들의 현실에서 출발하면서도 가부장적 관습과 성역할, 성차별적 문화를 해체해 가려는 지향을 견지해야 하며, 특정 사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 불평등의 요소를 구별하고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본다.

라. 여성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성운동의 모색

1) 운동사회의 가부장성 비판과 새로운 여성주의운동

1990년대 후반 등장한 젊은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진보적 사회운동 내부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문화를 지적하며 여성운동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가부장적 태도를 되풀이하는 사회운동세력을 비판하고 급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사회운동세력 내부의 성폭력을 드러내고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는 비교적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해서 ‘영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2000년 12월 ‘100인위’는 16건의 성폭력 사례를 가해자 실명 공개 형식으로 발표했으며 그 반향은 매우 컸다. 사회적으로 좀 더 윤리적이기를 요구받는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진보 진영에서 성별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단일한 신념 신화’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

성운동 안에서는 성폭력 개념의 확장이나 성폭력 공론화의 방식(가해자 실명공개) 등에 대한 각종 난제들이 극적으로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엄혜진, 2009). 100인위 운동의 주체들에게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율권 침해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운동사회 안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겪어온 역사적이고 폭력적인 차별의 경험을 의미화하고 정치화하기 위한 전략적 언어 자원에 가까웠다. 100인위의 반성폭력운동은 젠더 위계로 고통 받았던 운동사회 내 ‘여성’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지만, 이 운동은 다른 한편으로 남성중심적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기존 여성운동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 젊은 여성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여성운동을 ‘여성운동’으로, 2000년대 들어 새롭게 전개된 자신들의 운동을 ‘여성주의운동’으로 차별화하려고 시도했다. 오김숙이(2010)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광의의 여성운동이라고 보고, 여성주의를 자기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운동을 그로부터 분리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를 자기정체성으로 표방한 집단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 말이지만 독립된 조직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본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의 공통된 맥락은 ‘소수자와 연대하는 여성주의운동’이다. 이 단체들은 구체적인 운동 방식과 실천 전략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지향과 활동에서 ‘여성주의(운동)’과 ‘소수자와의 연대’라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실천하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오장미경(2004)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민주화 분위기의 확산,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입, 섹슈얼리티라는 새로운 문제영역의 부상을 지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운동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분야와 주제는 여전히 정치경제적 문제였다. 민주화운동과 여성 노동, 여성 빈민의 문제 등이 중요 문제로 다루어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운동 출신의 여성운동 그룹이 여성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탈근대론적 주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이자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성폭력이나 섹슈얼리티, 가족문제 등 문화적 쟁점이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문화적 쟁점들이 주목 받게 되면서 기존의 여성운동 그룹과 의제상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졌다(오장미경, 2004).⁴⁾

4) 오장미경은 또한 여성운동 내부의 차이가 표면화되는 이유가 여성운동의 양적, 질적 확산에

오김숙이는 2000년대의 새로운 여성운동이 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사상적 조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니네트워크(2000), WAW(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omen Against War, 2001), 여성해방연대(2002), 연분홍치마(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2004), 피자매연대(200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여성주의를 단체 활동의 기본적인 지향으로 표방하면서 기존의 여성운동과는 다른 독자적인 여성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여성 공통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들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 소수자 여성에 대한 식민화에 주목하며 단일 범주로서 여성을 해체하고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여성의 권리와, 소수자 여성의 관점에 선 반전평화담론을 제기했다. ‘소수자여성’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전개하면서 소수자운동, 문화운동, 평화운동 등 다중적 정체성을 띤 운동을 추구해 온 것이다. 이 운동의 구성원 중에는 비혼이고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고학력의 20 - 30대 젊은 여성들이 많다. 이들은 기존 사회운동과 일정한 수준으로 스스로를 분리하면서 이성애적 결혼, 모성, 가족 등으로 획득되는 시민권과 정상성을 거부한다. 나아가 비제도적이고 자율적인 정치 기획을 통해 소수자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연대하고 감수성의 정치에 중점을 둔 여성운동의 또 다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오김숙이, 2010).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의 주요한 기반은 인터넷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답게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이버커뮤니티나 웹진에서 여성주의 공간을 만들어 성평등 이슈와 의제, 사고와 실천의 양식에 대해 토론해 왔다. 카페와 게시판 등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미팅을 병행하면서 이들은 다양한 소그룹을 형성하였고 여러 가지 여성주의 이슈들을 생산했다. 그 결과 디지털 시대와 더불어 탄생된 새로운 여성운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이버페미니즘(Cyber-feminism)’이 탄생했다. 이는 가상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고 생산되는 디지털 담화 내에 성별 권력차이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힘을 결집시키는 공간으로서

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나타난 여성운동의 주체 외에도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 주체들 사이의 차이들은 최근 여성운동의 관점차이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 내부에도 상류층/하류층, 장애인/비장애인, 이성애자/동성애자, 노인/젊은 세대, 도시민/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러한 주체의 차이들이 결국 여성운동의 입장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오장미경, 2004).

인터넷을 중요한 매체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리킨다(신희선, 2005). 고학력의 젊은 여성운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운동의 진지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을 제공하였다. 전자 메일 보내기, 전자 엽서 보내기, 배너 달기, 전자우편을 통한 서명활동, 온라인 투표, 플래시 전파하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성회원들은 물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었다.⁵⁾

온라인 여성운동과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이버공간이 단지 기술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김경례, 2007). 사이버공간은 그 자체가 여성친화적이거나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지배질서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이보그들의 정치적·문화적 투쟁의 장이며, 이러한 투쟁의 효과로 사이버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지배적인 권력관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사이버페미니즘의 정치성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균열을 가하는 주체들의 역동적 활동성에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하거나 주요 거점으로 하는 주체들은 생물학적 여성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여성이며 여성주의적 정치를 실천한다. 이러한 실천은 이슈나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연대하면서도 단일한 정치적 이념 및 입장을 제시하거나 여성들을 동질화하기보다 여성 간의 적대와 ‘차이’를 무화시키지 않는 소통의 장을 통해 오히려 여성운동을 확장해가려고 한다.

2) 차이의 정치

기존 여성운동이 여성운동들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동일화 전략을 취한다면, 신생 여성주의 단체들은 기존 여성운동과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구별짓기 전략을 취한다(오김숙이, 2010). 이들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제시한 안이 비록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이성애중심성과 정상성이라는 통념을 따르는 가족 정책이라면 동성애, 비혼, 장애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킨다고 본다. 또 다양한 사회운동에서 제시되는 인권, 민주주의, 평화, 통일 등의 가치들을 페미니즘이라는 관점으로 재사유할 것과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페미니즘 시각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소수자와 연대하는 여성주의운동은 소수자 담론을 통해 여성

5) 신희선은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여성들간의 대화는 딱딱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강한 언어적 표현을 보여주는 남성들과는 다르다고 본다. 마치 친구들과끼리 모여 편안하게 수대를 떨 듯이 친밀감을 드러내고 정서를 교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글쓰기 방식은 또 다른 해방을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신희선, 2005).

들 사이의 차이와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운동의 주체로서 소수자 여성을 호명한다. 소수자 여성의 입장은 젠더 범주에 따른 여성 정체성과 함께 다른 사회관계에 따른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다중적 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2000년대 여성운동은 ‘정체성의 정치’에서 벗어나 ‘차이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임국희, 2011). 차이의 정치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는데, 정체성의 정치가 동일한 정체성이 가정되는 집단들 내부의 차이를 억압하고 차이를 위계적인 대립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Young)은 ‘차이들을 다르게 다루는(to deal with differences differently)’ 정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Young, 1990; 임국희, 2011에서 재인용). 근대의 보편주의적인 시민권의 이상이 동일시의 논리에 기대고 있는 이상, 이는 특정한 집단들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 작동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허구적인 동질성의 개념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비가시화되어 왔던 피억압 집단들의 특수성(particularity)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현재의 민주주의 제도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섹슈얼리티 영역에서의 여성운동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성매매방지특별법에서 여성은 ‘피해자’로서 자기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문은미, 2008). 때문에 여성의 피해자화는 늘 쟁점이 되었으며 피해자로서 정체성이 여성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역사적 수준에서 혹은 일상적 수준에서 자신을 ‘피해자’로서 인식하고 정체화하는 것은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계기들’이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본질주의에 대한 비판과 차이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법·제도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피해자화라는 문제를 등장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저항을 침묵시키는 역사로 이어졌다(변혜정, 2004). 남성의 공격으로서 폭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대상을 무력하게 만들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반성폭력운동이 전제한 여성은 동질적인 피해자 여성으로서 여성은 주로 보호의 대상, 복지서비스의 대상, 피해자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부각시키기 위해 여성들 사이의 차이는 억압되었다.

따라서 변혜정(2005)은 이제 여성주의는 남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임과 여성됨’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물질적 기반을 갖고 여성이라는 범주가 구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다양한 지점에서 분석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지배적 규범을 뒤흔드는 다양한 실천들, 현재의 성적 가치체계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 그리고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고 말하기 등등의 급진적인 실천을 통해 여성으로 구성되는 지점들을 비판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주의/여성운동은 이성애적, 성별화된, 계급화 된 맥락 아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고안하고 창조해야 했던 각각의 행위성을 설명해야 하며, 담론적 주체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진행 중인 주체로서 동성애 정체성과 여성됨의 정체성을 설명해야 한다. 여성주의자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 성노동자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꽃뱀, 화냥년, 첩, 동성애, 성매매, 성폭력 등의 의미를 다시 구성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성별화되고 계급화되고 이성애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낯선 새로운 정체성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은미(2005)는 성노동자운동을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자화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반드시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자발적’이라는 표현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당사자 운동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로서의 의식 역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현실의 모순을 접하고 바꾸려는 노력이 시작될 때 가능하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나아가야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구조’되어야 하는 ‘피해자’로만 인식해서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성노동자운동은 “낯설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차이와 연대의 필요성

이러한 차이의 정치학에 근거한 새로운 여성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성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오장미경은 일부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한해서는 ‘차이’보다는 ‘연대’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여성운동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여성운동 전체의 힘의 약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오장미경, 2004). 오히려 대립적인 견해가 특정 쟁점이 지닌 본질과 해결책에 대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희(2000)도 차이는 여성 집단의 복합적 구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될 지언정 종착점은 아니며, 차이들 사이의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 경중을 가려서, 가령 성별과 계급, 인종/민족 등 구조적 모순에 따른 차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들 사이의 차이점뿐 아니라 공통점을 배려함으로써 여성 간 연대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찬숙(1999)은 가족과 직업의 양 부문 사이에 걸쳐 있는 여성의 생애과정은 생애주기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동질성이나 이질성이 과장되기 쉽다고 본다. 결혼 여부, 출산 여부, 양육 여부 등에 의해 여성의 생애사는 경력의 축적보다는 단절과 회귀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동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생애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여성 간 차이를 규명하고 연대의 틀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정미(2006)는 한국의 여성운동이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성평등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참여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는 점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 내부로부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여성운동 의제에 관한 성찰성이 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차이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 세대 차이, 섹슈얼리티, 지역적 차이가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새로운 인식틀을 구성해가려면 세대 간의 차이, 성적 지향성의 차이, 성 경험의 차이, 남성과의 연대의 차이, 계급적 차이,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내실 있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인정의 정치를 통해 억압되고 부인되어 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재평가하고 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 ‘생활정치-지역사회-풀뿌리운동-여성주의-차이의 정치’의 공존과 연대

지금까지 지난 20여년 간 한국의 여성운동이 거두어온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정리하면, 지난 20년의 여성운동은 운동의 제도화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형식적 평등의 가능성을 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화의 경로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중성의 약화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여성운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활정치운동을 시도하고 일반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풀뿌리운동을 전개했다. 또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소수자의 관점에서 운동의 이슈를 제기하는 차이의 정치를 추구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가 아직 명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각각의 전략이 모두 동질적인 목표나 방법론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들 운동 세력 사이에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적지 않고 때로 대립이나 갈등의 여지도 존재한다. 전형적인 사례가 풀뿌리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성주의와의 갈등이다.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적극적이지만, 이것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해 가는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지역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상당수의 공동체 운동들이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체 운동이 갖는 성차별적, 이성애중심적, 가족주의적 요소에 반대하며 독자적인 조직을 꾸리려는 시도가 최근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희경(2014)은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에서 서울시 마포·은평 지역의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마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공/사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젠더질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을 가족의 일원이자 관계중심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전제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지역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성차별적 젠더질서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비혼’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위치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기존의 공동체 운동을 여성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공동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이나 농민운동에서도 여성들은 여성주의적 주체(feminist subjects)로 참여하기보다는 여전히 동원의 대상에 머물러 있거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주체(feminine subjects)로 남아 있다(김원정, 2008; 박신규·정은정, 2010). 당사자운동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참여하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성차별적 젠더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풀뿌리운동의 여성구성원들이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해석하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여성 내부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여성단체 지원은 이 지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현황과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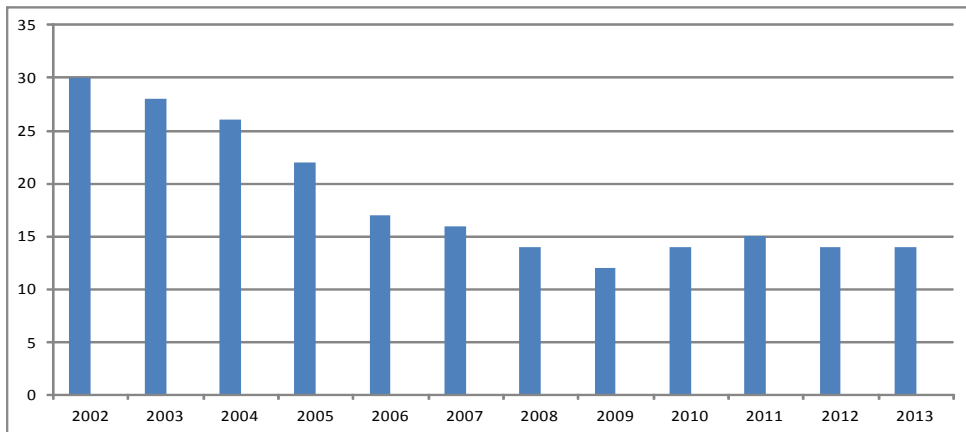
가. 참여단체와 수행사업의 현황

1) 연도별 참여단체의 수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은 2002년에 30개 단체가 참여한 이후에 2003년에 28개, 2004년에 26개, 2005년에 22개로 2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7개, 2008년에 14개, 2009년에 12개로 단체 수가 줄어들다가 2010년에 14개, 2011년에 15개, 2012년에 14개, 2013년에 14개로 2년 연속적으로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 수는 총 222개이다.

〈표 5〉 연도별 참여단체의 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	30	28	26	22	17	16	14	12	14	15	14	14	222
(비율)	(13.5)	(12.6)	(11.7)	(9.9)	(7.7)	(7.2)	(6.3)	(5.4)	(6.3)	(6.8)	(6.3)	(6.3)	(100)



2) 연도별 지역별 참여단체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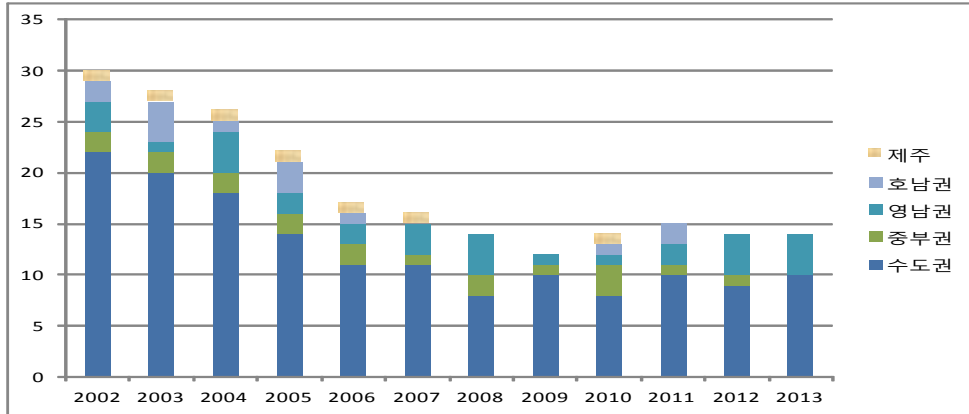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소재한 지역을 크게 5가지 권역별로 나누고 연도별 지역별로 참여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단

체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많다. 2002년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단체들은 22개로 전체의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권에 소재한 단체는 3개, 호남권에 소재한 단체는 2개로 영남권과 호남권에 소재한 단체는 전체의 10%, 6.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에는 호남과 제주권에 소재한 단체의 참여가 줄어들어서 2012년과 2013년에는 하나도 없다. 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지원단체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호남과 제주권에 소재한 단체들의 참가 신청이 낮아졌기 때문이다⁶⁾.

〈표 6〉 연도별 지역별 참여단체의 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2 (73.3)	20 (71.4)	18 (69.2)	14 (63.6)	11 (64.6)	11 (68.75)	8 (57.1)	10 (83.3)	8 (57.2)	10 (66.7)	9 (64.3)	10 (71.4)	151 (68)
중부권 (충남충북강원)	2 (6.7)	2 (7.1)	2 (7.7)	2 (9.1)	2 (11.8)	1 (6.25)	2 (14.3)	1 (8.35)	3 (21.5)	1 (6.7)	1 (7.1)	0 (0.0)	19 (8.5)
영남권 (경남,경북)	3 (10)	1 (3.6)	4 (15.4)	2 (9.1)	2 (11.8)	3 (18.75)	4 (28.6)	1 (8.35)	1 (7.1)	2 (13.3)	4 (28.6)	4 (28.6)	31 (14)
호남권 (전남,전북)	2 (6.7)	4 (14.3)	1 (3.8)	3 (13.6)	1 (5.9)	0 (0.0)	0 (0.0)	0 (0.0)	1 (7.1)	2 (13.3)	0 (0.0)	0 (0.0)	14 (6.3)
제주	1 (3.3)	1 (3.6)	1 (3.9)	1 (4.6)	1 (5.9)	1 (6.25)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7 (3.2)
합계	30 (100.0)	28 (100.0)	26 (100.0)	22 (100.0)	17 (100.0)	16 (100.0)	14 (100.0)	12 (100.0)	14 (100.0)	15 (100.0)	14 (100.0)	14 (100.0)	222 (100.0)

6) 호남권의 경우 여성단체의 수가 타 지역 보다 적은 편이고 광주시의 경우 정부가 여성 단체를 적극 지원하는 편이어서 한국여성재단에 신청하는 단체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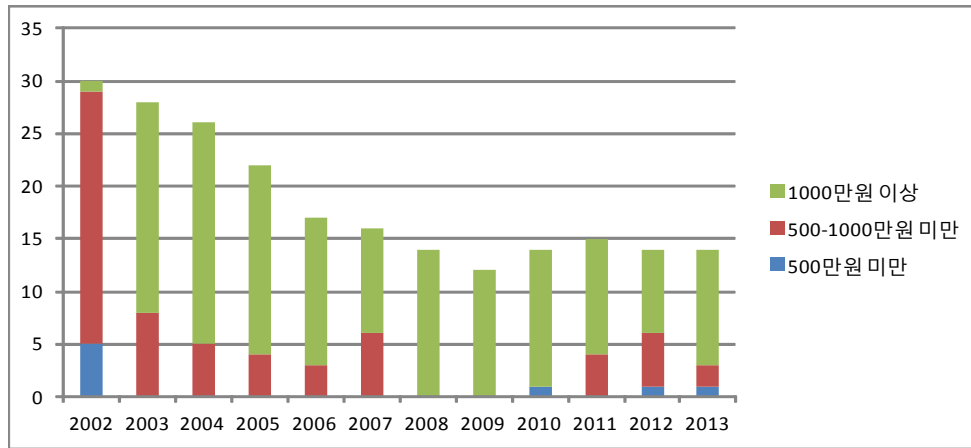
3) 연도별 지원금액별 수행사업의 수

연도별 지원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500만원~1,000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이 24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1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는 1,000만원 이상의 예산규모가 되는 사업의 비중이 커져서 2008년과 2009년에는 지원한 사업 모두가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었다. 2010년부터 500만원 미만의 소액지원 사업이 1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되는 사업이 2011년에는 4개, 2012년에는 5개로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지원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이 전체의 42.9%를 차지하였다. 2013년에는 지원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 11개로 늘어나서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청한 단체들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해당사업을 계획해서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연도별 지원금액별 수행사업의 수

연도/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500만원 미만	5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0 (0.0)	1 (7.2)	1 (7.2)	8 (3.6)
500-1000만원 미만	24 (80)	8 (28.6)	5 (19.2)	4 (18.2)	3 (17.6)	6 (37.5)	0 (0.0)	0 (0.0)	0 (0.0)	4 (26.7)	5 (35.7)	2 (14.3)	61 (27.5)

연도/ 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000만원 이상	1 (3.3)	20 (71.4)	21 (80.8)	18 (81.8)	14 (82.4)	10 (62.5)	14 (100.0)	12 (100.0)	13 (92.9)	11 (73.3)	8 (57.1)	11 (78.5)	153 (68.9)
합계	30 (100.0)	28 (100.0)	26 (100.0)	22 (100.0)	17 (100.0)	16 (100.0)	14 (100.0)	12 (100.0)	14 (100.0)	15 (100.0)	14 (100.0)	14 (100.0)	222 (100.0)



4) 연도별 자부담 규모별 수행사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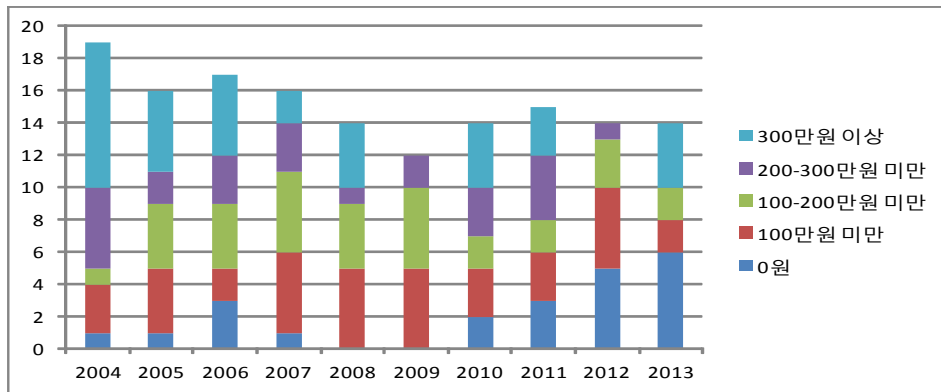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한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300만원 이상 금액으로 자부담한 단체가 9개로 47.3%였으나 2012년에는 0%, 2013년에는 28.6%로 자부담하는 단체의 수가 적어지고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3년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가 6개로 전체의 42.6%에 해당한다. 활동가들과의 면접내용에 의하면, 단체들 중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자부담할 능력이 있더라도 회계처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자부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⁷⁾.

7) 면접조사에 의하면, 사업을 수행하면서 단체가 자부담하는 경우 한국여성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영수증 제출을 포함해서 여러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한다.

〈표 8〉 연도별 참여단체의 자부담 규모

연도/금액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0원	-	-	1 (5.3)	1 (6.25)	3 (17.6)	1 (6.25)	0 (0.0)	0 (0.0)	2 (14.3)	3 (20)	5 (35.7)	6 (42.8)	22 (14.6)
100만원 미만	-	-	3 (15.8)	4 (25)	2 (11.8)	5 (31.25)	5 (35.7)	5 (41.7)	3 (21.4)	3 (20)	5 (35.7)	2 (14.3)	37 (24.5)
100-200만원 미만	-	-	1 (5.3)	4 (25)	4 (23.5)	5 (31.25)	4 (28.6)	5 (41.7)	2 (14.3)	2 (13.3)	3 (21.4)	2 (14.3)	32 (21.2)
200-300만원 미만	-	-	5 (26.3)	2 (12.5)	3 (17.6)	3 (18.75)	1 (7.1)	2 (16.6)	3 (21.4)	4 (26.7)	1 (7.2)	0 (0.0)	24 (15.9)
300만원 이상	-	-	9 (47.3)	5 (31.25)	5 (29.5)	2 (12.5)	4 (28.6)	0 (0.0)	4 (28.6)	3 (20)	0 (0.0)	4 (28.6)	36 (23.8)
합계	-	-	19 (100)	16 (100)	17 (100)	16 (100)	14 (100)	12 (100)	14 (100)	15 (100)	14 (100)	14 (100)	151 (100)

주 : 2002년과 2003년도는 자부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2004년과 2005년은 누락된 보고서 제외하였음. (2004년(7), 2005년(6))



5) 연도별 사업수행기간별 사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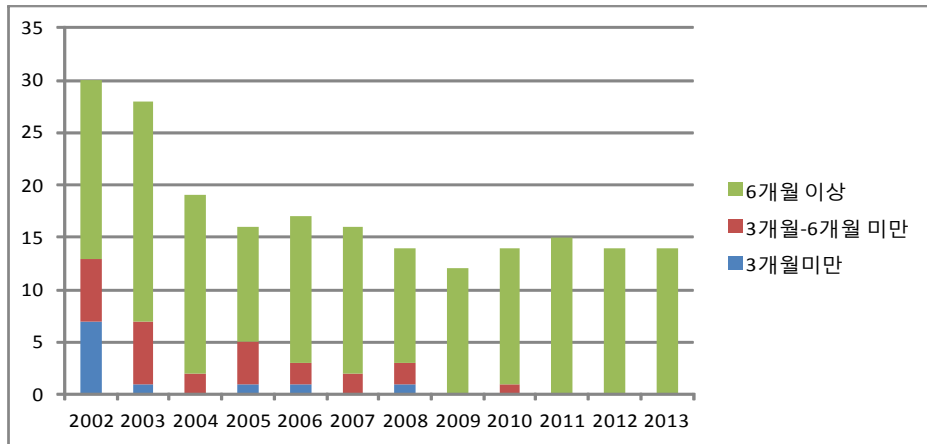
연도별로 참여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한 기간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사업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사업이 다수 있었으나 점차 6개월 이상의 사업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2002년에는 3개월 미만사업이 7개(23.3%), 3-6개월 미만 사업이 6개(20%), 6개월 이상 사업이 17개(56.7%)로 사업 수행기간이 다양했던 반면에 2009년에는 6개월 이상의 수행기간을 가진 사업이 100%이다. 2010년에는 3-6개월 미만인 사업이 1개 있었고 2011년 이후에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

한 단체들이 수행한 사업 모두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청한 단체들이 단기간 보다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진 사업 수행을 선호해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표 9〉 연도별 사업수행기간별 사업의 수

연도/ 기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개월 미만	7 (23.3)	1 (3.6)	0 (0.0)	1 (6.25)	1 (5.9)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11 (5.3)
3개월- 6개월 미만	6 (20)	6 (21.4)	2 (10.5)	4 (25)	2 (11.8)	2 (12.5)	2 (14.3)	0 (0.0)	1 (7.1)	0 (0.0)	0 (0.0)	0 (0.0)	25 (12)
6개월 이상	17 (56.7)	21 (75)	17 (89.5)	11 (68.75)	14 (82.3)	14 (87.5)	11 (78.6)	12 (100.0)	13 (92.9)	15 (100.0)	14 (100.0)	14 (100.0)	173 (82.8)
합계	30 (100.0)	28 (100.0)	19 (100.0)	16 (100.0)	17 (100.0)	16 (100.0)	14 (100.0)	12 (100.0)	14 (100.0)	15 (100.0)	14 (100.0)	14 (100.0)	209 (100.0)

주: 누락된 보고서는 제외하였음(2004년(7), 2005년(6))



6) 연도별 연속사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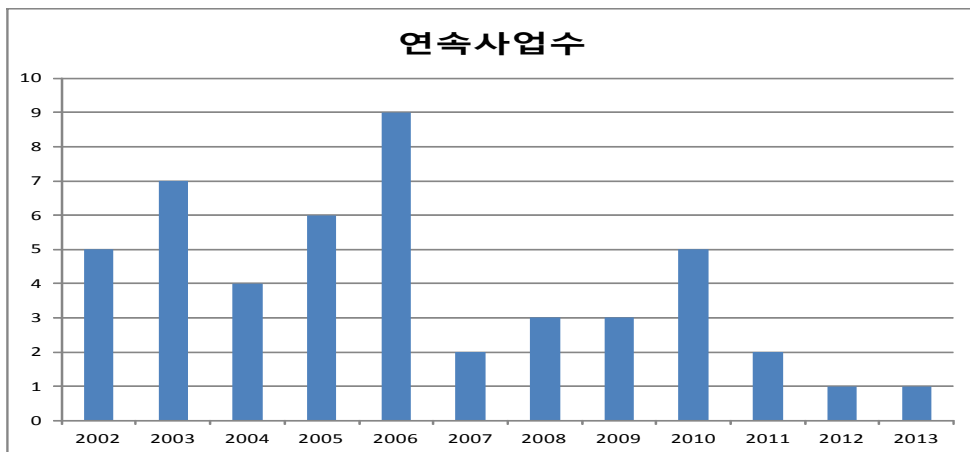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 연속사업은 지난 12년간 총 50건이 있었다. 이 사업 초기에는 연속사업이 3개에서 9개로 비교적 많았던 반면에 최근 2012년과 2013년에는 1개에 불과해서 연속사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수행되었던 연속사업을 살펴보면, 성매매와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업에 대해 2

년 연속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속사업을 받은 단체의 특징을 보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지만 1,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많다. 사업수행기간은 모두 6개월 이상이고 자부담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 반면에 참여단체가 300만원 이상 자부담한 경우도 있다.

<표 10> 연도별 연속사업의 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개 비율	5 (10.4)	7 (14.6)	4 (8.3)	6 (12.5)	9 (18.8)	2 (4.2)	3 (6.3)	3 (6.3)	5 (10.4)	2 (4.2)	1 (2.1)	1 (2.1)	50 (100.0)

주: 누락된 보고서 제외 : 2004년(7), 2005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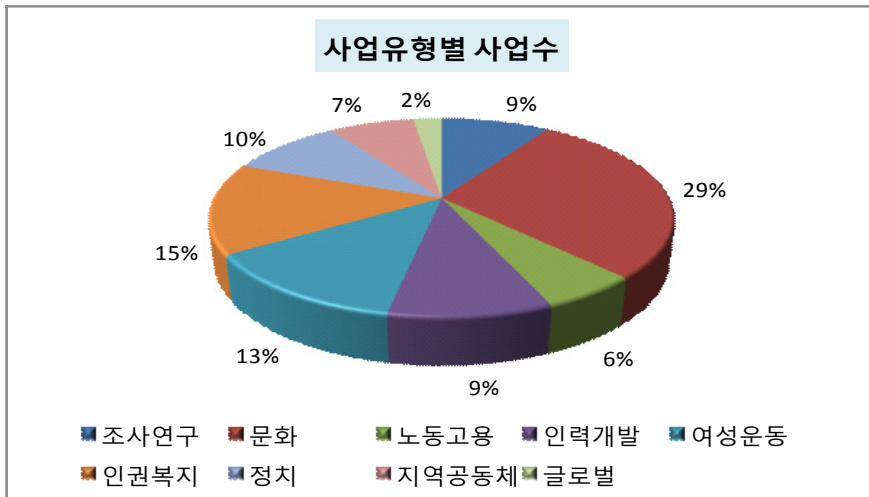
<표 11> 연속지원을 받은 사업(2010-2013)

연도	단체명	사업명	예산규모	지역	자부담	사업기간
20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부설진주가정 폭력상담소	엄마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가요	500만원 미만	영남권	0	6개월 이상
20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부설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엄마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가요	500만원 미만	영남권	0	6개월 이상
2011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가출 청소년 날다- "I 성·인·임 Project" (성적자기결정권과인턴쉽훈 련을통한임파워먼트)	1,000만원 이상	호남권	3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연도	단체명	사업명	예산규모	지역	자부담	사업기간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상담과여성주의상담의접점찾기": 제2회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1,000만원 이상	수도권	200-3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2010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가출청소년의 휴게소 "1318 뽕송 아지트"	1,000만원 이상	호남권	100-2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2010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위한 역량강화워크샵 "성폭력가해자와공동체의 관계를다시질문하다!"	1,000만원 이상	수도권	3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7) 연도별 사업유형별 사업 수

2002년부터 수행되었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할 때,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성평등문화, 여성인력개발, 고용·노동, 지역공동체, 여성운동 활성화, 인권 및 복지, 정치, 글로벌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되었던 사업유형을 보면, 성평등 문화(29%)가 가장 많고, 인권복지(15%), 여성운동 활성화(13%)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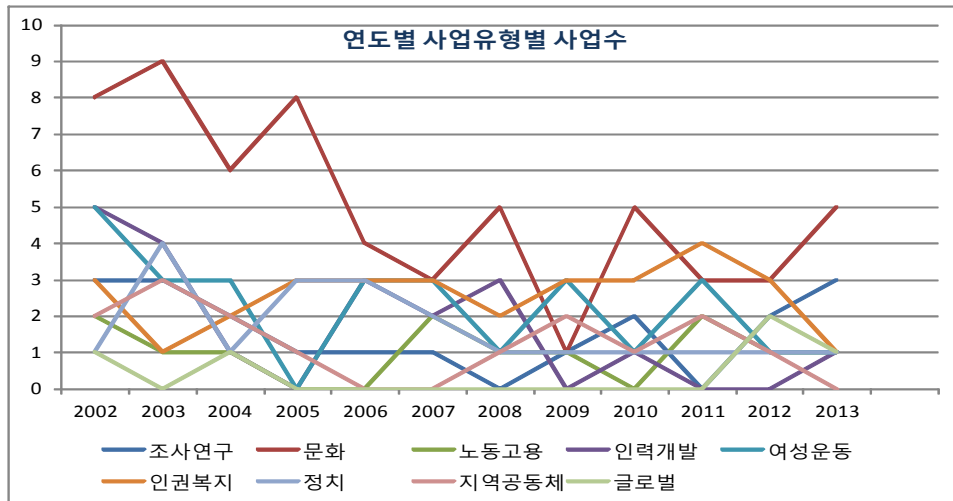
각 사업유형에 속한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분야는 성평등 인식 및 실태조사,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다. ②성평등 문화 분야는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가정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한다. ③여성인력개발 분야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관련 상담원 양성, 여성 인력개발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④지역 공동체 분야는 아파트단지 및 지역에 기반을 둔 여성들의 활동, 지역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 등이다. ⑤여성운동 활성화 분야에는 여성운동의 미래, 여성운동가 양성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⑥인권 및 복지 분야는 장애인여성, 결혼이주여성, 가출청소년, 성소수자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성매매여성, 북한이주여성, 미혼모 지원 사업 등이다. ⑦정치참여 분야는 지방자치선거 여성후보 양성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정치참여 촉진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⑧글로벌 분야는 UN협약 관련 국제연대사업, 국제 여성단체 회의 관련 사업 등이다. ⑨고용·노동 분야는 비정규직 여성차별, 고용상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다.

〈표 12〉 연도별 사업유형별 사업수

연도/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3	2	1	1	1	0	1	2	0	2	3	19 (9.1)
성평등 문화	8	9	6	8	4	3	5	1	5	3	3	5	60 (28.7)
노동 고용	2	1	1	0	0	2	1	1	0	2	1	1	12 (5.7)
인력 개발	5	4	1	0	3	2	3	0	1	0	0	1	20 (9.6)
여성운동 활성화	5	3	3	0	3	3	1	3	1	3	1	1	27 (12.9)
인권 및 복지	3	1	2	3	3	3	2	3	3	4	3	1	31 (14.8)
정치	1	4	1	3	3	2	1	1	1	1	1	1	20 (9.6)
지역공동체	2	3	2	1	0	0	1	2	1	2	1	0	15 (7.2)
글로벌	1	0	1	0	0	0	0	0	0	0	2	1	5 (2.4)
합계	30	28	19	16	17	16	14	12	14	15	14	14	209 (100.0)

주: 2005년과 2004년은 누락된 보고서 제외 : 2005년(6), 2004(9)

사업유형별로 사업수의 연도별 경향성을 보면,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의 초기인 2002년과 2003년에는 성평등 문화, 인력개발, 여성운동 활성화, 정치참여 관련 사업이 많았던 반면에 2012년과 2013년에는 성평등 문화,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관련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여성인력개발 분야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그 비중이 컸던 반면에 최근에는 1개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2000년대 초에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국회여성보좌진 양성교육 등을 통해 여성 상담원을 양성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한국여성재단에 해당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연도별 사업대상별 사업 수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은 취약계층 여성 뿐 아니라 일반 여성, 청소년과 성인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업의 주요대상을 일반여성, 취약계층 여성, 개도국 여성 등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다. ①성인여성은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을 포함한 성인 일반여성을 지칭하며, ②취약계층 여성은 빈곤여성, 모자가족 여성,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가출청소년, 성소수자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성매매여성, 북한이주여성, 미혼모 등을 포함한다. ③청소년은 유치원, 초중고 여학생을

포함하며 ④여성활동가는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여성단체 및 여성활동가를 지칭한다. ⑤일반시민에는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포함하며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표 13〉 연도별 사업대상별 사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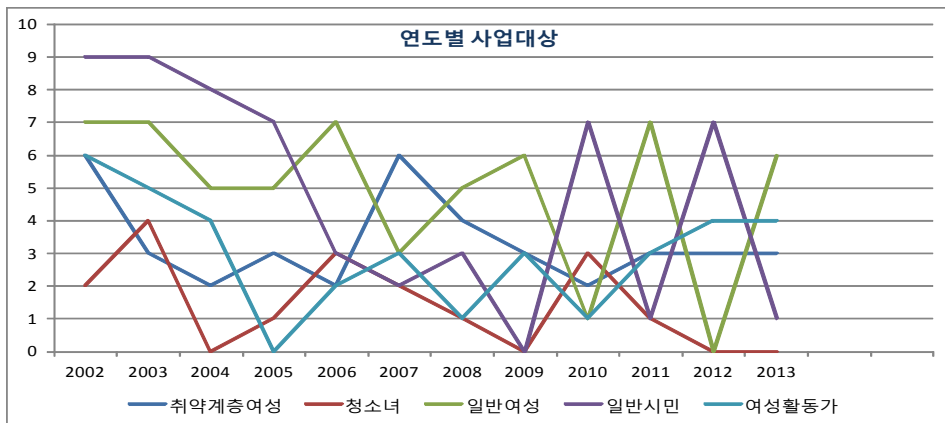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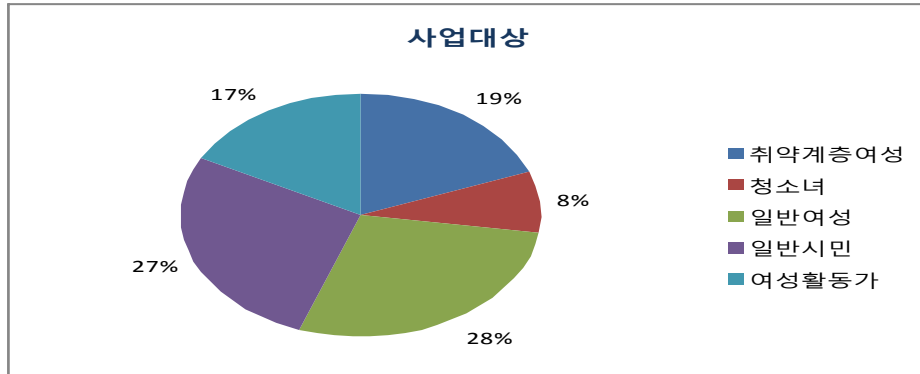
연도/ 대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취약계층 여성	6	3	2	3	2	6	4	3	2	3	3	3	40 (19.1)
청소년	2	4	0	1	3	2	1	0	3	1	0	0	17 (8.1)
일반여성	7	7	5	5	7	3	5	6	1	7	0	6	59 (28.2)
일반시민	9	9	8	7	3	2	3	0	7	1	7	1	57 (27.3)
여성활동가	6	5	4	0	2	3	1	3	1	3	4	4	36 (17.2)
합계	30	28	19	16	17	16	14	12	14	15	14	14	209 (100.0)

주: 2005년과 2004년은 누락된 보고서 제외 : 2005년(6), 2004(9)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19.1%, 청소년은 8.1%, 일반여성은 28.2%, 일반시민은 27.3%, 여성활동가는 17.2%이다.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일반시민,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는 성평등사회 조성사업이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여성단체가 기획한 상담원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교육에 남성이 참여하도록 열어두면서 사업대상을 넓혀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3년에 경남여성회가 주관한 사업(색깔있는 “청춘 도(都)시(時)락(樂))사업은 여자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은 가운데 소수의 남자대학생들도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도별로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성평등 사업 초기에는 일반시민과 일반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비교적 활발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일반여성과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

업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사업대상이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미래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을 짚어질 청소년에 관한 여성계의 관심이 미약해 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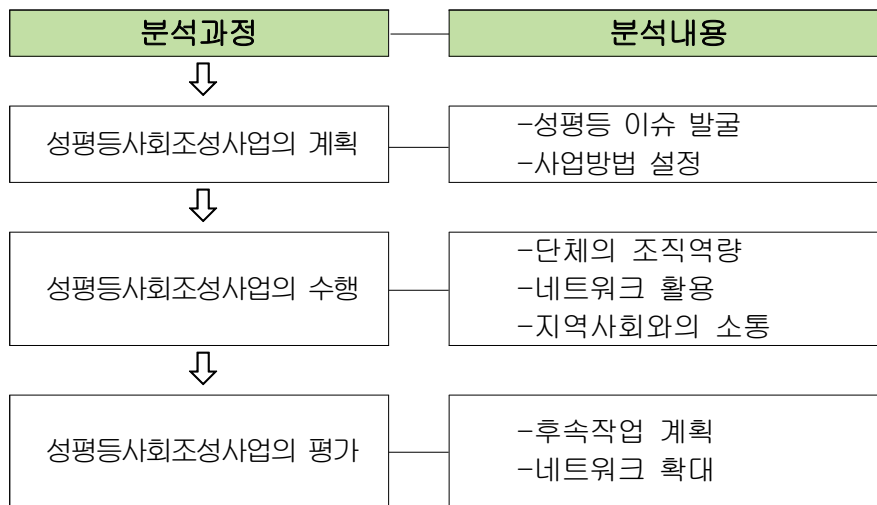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평가

1)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이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이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 사업의 미래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은 지난 12년간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물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될 이 사업 결과물의 성과를 관리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다. 성과평가라는 의미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파트너단체들이 수행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전체에서 발견되는 성과들을 단계별로 질적 평가를 함으로써 성과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과관리는 지속성과 순환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아래의 그림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관리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계획과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수행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한 후 참여단체들이 사업결과를 평가하면서 이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 이슈를 확산시키고 여성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제시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성평등 이슈 발굴, 예산과 인력의 투입, 신청과정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여기에서는 단체들이 사업을 수

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활용했고 네트워크를 활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평가할 것이다. 셋째, 사업을 평가하는 단계로, 여기에서는 참여단체들이 해당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평등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려고 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후속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해 성과를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다.

〈표 1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과평가 지표

단계	평가지표	점검포인트
사업 계획	-젠더이슈 발굴	-사업목표에서 성평등, 젠더이슈를 어느 정도 발굴했는가?
	-사업방법 설정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방법을 개발했는가?
		-사업담당팀이 회원 참여를 포함해서 구성되었는가?
사업 수행	-단체의 조직역량	-사업수행 시 단체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하였는가?
	-네트워크 활용	-유관단체의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활용하였는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홍보	-사업수행시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홍보를 했는가?
사업 평가	-후속사업	-후속작업은 여성운동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이후 단체의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는가? -사업이후 해당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평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돌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고유 핵심목적사업이다(한국여성재단, 2013: 2). 또한 이 사업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한국여성재단, 201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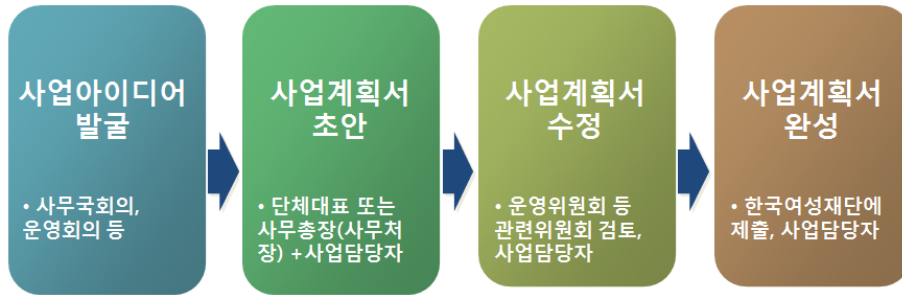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그날’까지 여성운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기대하는 개인기부자들의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금은 2010년 100인기부릴레이를 통해서 4,436 명의 기부자들과 정기후원, 모금방송, 포인트 기부, 동전나눔, 일터나눔 등 한국여성재단 일반 개인 모금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소액의 다수의 기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개미 기부’에 해당된다(2012:2).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내용은 개미기부자들에게 이 사업의 성과를 알릴뿐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개선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들과의 면접내용은 성과를 분석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기에 이 절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해당사업을 진행했던 과정을 3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단체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과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평가과정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성과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사업의 계획과정

(1) 사업계획서의 작성 : 성평등 이슈의 발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이 한국여성재단에 프로젝트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성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는 단체 회원의 참여 없이 사업 담당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이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단체의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고 사무총장(팀장)과 상근자가 의견을 모으고 사업 계획서를 상근자가 작성하는 경우이다.

대표님이 외부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우리 단체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보려고 제안하셨어요. 대표님과 제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만들었고 그 초안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었어요. 수정한 보고서를 여성재단에 제출하였고요(사례 13).



〈그림 2〉 유형 1-사업담당자 중심형

두 번째는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모아지고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경우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던 한 단체는 다음 년도에 발굴할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들과 모임을 했고, 상근자들은 단체 회원들과 면접을 하면서 회원들이 바라는 성평등, 젠더 이슈를 발굴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단체 회원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계획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운동에 관심이 있어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회원들은 단체 활동가(상근자, 핵심적인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소속감을 갖고 젠더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석하는 인식의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주의를 이해하게 되고 성 차별적인 사회변화를 향한 실천활동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계획과정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회원 참여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 유형 2- 회원 참여형

매년 새로운 성평등, 젠더 이슈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단체에서는 다음년도에 하게 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단체의 상근자 뿐 아니라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했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팀별로 모여 있는데 각 팀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우리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을 제안하도록 했어요. 소모임 활동을 하는 회원 한명 한명이 반 페이지 분량의 사업 아이템을 적어서 냈고 그 자료들을 갖고 팀별로 회의하면서 우리단체가 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해 갔어요. 상근자들은 소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만나서 회원들로부터의 의견을 받아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하고 여성재단에 신청할 사업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여성주의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야기도 했어요(사례 6).

이와 같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 중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성평등 이슈를 찾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활동가 뿐 아니라 일반 회원들이 신규 사업을 위한 아이템을 생각하도록 하고, 여성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여성주의 담론 생산에 관한 활동을 적극 펼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사업방법의 개발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여성운동의 성장에 두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방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면접조사 내용에 의하면,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운동의 목적은 성평등 실현,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성차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집단적인 활동, 대안적인 여성주의 문화 창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적인 활동에 두어진다고 보고 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라고 해도 대중들과의 만남을 이룰 때는 여성주의를 표현하는 언어들을 필요로 한다. <사례 18>이 속한 단체에서는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면서 지역에서 대안적인 삶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업을 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각자의 공간에서 소중한 활동을 펴온 여성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강좌를 진행했다. 여기에서는 자연에너지운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벌여나가는 여성, 글쓰기모임을 해오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지역사회에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여성들, 토종씨앗을 지키며 GMO를 반

대하는 여성농민들, 매체를 통해 지역의 여성주의를 꽃피우는 여성문학인들, 버려진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젊은 여성활동가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경험하는지 그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2010년에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가들과 만나면서 여성주의 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어요. 여성주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여성주의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20대 여성에게 여성주의 담론은 어떤 것인지? 젠더, 노동을 화두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사례 18).

젊은 여성활동가들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에 이 여성들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례 17>이 속한 단체에서는 단체회원과 비회원들이 참여하는 소모임을 다양한 연령, 계층을 포괄하여 구성하였다. 즉 이 단체에서는 소모임의 주제를 미혼모가족, 다문화가족, 농촌지역 정보소외계층 등으로 정하고 대학생, 2030대, 3040대, 4050대의 남녀가 참여하도록 하는 소모임을 활용하였다.

젊은 친구들은 40, 50대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이라면 그들이 세부계획과 일정을 만들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봐요(사례 17).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들이 제안한 사업의 목적을 보면,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운동 실천가 양성, 풀뿌리 여성운동 확대 등으로 모아진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교육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소모임 운영, 활동사례모임과 책자발간 등으로 파트너단체들은 이러한 사업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주의 확산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의 수행과정 :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파트너단체들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몇 가

지 주요한 성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들이 여성재단에 제출한 사업 결과보고서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성주의 부활 프로젝트 만들기, 신생 여성단체의 육성, 국내 여성단체의 네트워킹 활성화, 여성단체 활동가 교육, 세대 간 소통 확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 사업 등으로 요약된다.

(1)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가) 신생 여성단체의 육성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대생 중심의 청년층 여성들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를 초기에 연속 지원하면서 그 단체가 여성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언니 네트워크는 2000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인데, 그 당시에 인터넷 활용이 활발한 젊은 층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독창적으로 발굴하였다. ‘여성 사이버 행동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환경 개발’ ‘언니네 페미니즘 캠프’, ‘여성주의 박람회’ 등은 여성재단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했던 사업들로 이 단체는 사업을 통해서 젊은 층의 여성주의자(영 페미니스트)들을 키워내고 교육을 통해서 여성주의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2000년대 초 새롭게 만들어지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했던 여성운동가는 당시를 희생하면서 한국여성재단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성재단은 언니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이며 파트너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여성재단을 설립했으며 그 취지를 살려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를 지원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언니네트워크였던 셈이지요. 2000년 당시에 PC통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주의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여성단체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2003년에 여성유저(user)를 위한 사이트를 개발하였고 다행히 회원 중에는 사이트개발업자가 있었어요. 여성재단에 사업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례 21)

2003년 이후에도 그 단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연속 신청했고 5년간 지원을 받으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신규 회원들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희 단체에서 1회 페미니즘 캠프를 열었는데 여성재단 지원을 받았어요. 3박4일간 열리는 페미니즘 캠프에 관해 여대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150명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2회 페미니즘, 3회 페미니즘 캠프를 연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젊은 층의 회원들이 단체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회원가입이 크게 늘었어요. 여성재단에서는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열리는 페미니즘 캠프에서는 자체 비용으로 총당했어요. 페미니즘 캠프가 계속 열리고 있고 7차 페미니즘 캠프까지 운영되고 있어요(사례 21).

면접내용에 의하면, 2000년대에 대학 내에서는 여성주의가 붐을 이루었고 2002년 월경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젊은 여성들의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여성들을 여성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조직화된 여성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 단체는 2014년 현재, 회원의 60%가 20-30대이며 20대 중반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30대 비혼의 직장여성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결혼에 관심이 없으나 사회적 압박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집단을 새롭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여성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사이트를 운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2006년에 사이트를 리뉴얼하는데 2천만 정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플랫폼들이 온라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사이트 이용자가 많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여성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봐요. 어느덧 단체가 만들어진 10년이 되었네요. 2014년 10월은 창립 10주년이 되는 달인데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단체의 사업방향을 고민하고 있어요(사례 21).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여성운동을 주도해 온 단체들의 대부분이 설립된 지 30여년 가까이 된 것과 달리, 단체를 설립한지 10여년 가까이 된 주니어 여성단체라 할 수 있는 이 단체는 여성운동에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 성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국내외 여성단체의 네트워킹 활성화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뿐 아니라 비회원단체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1>이 속한 여성단체는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시민단체들이 먹거리와 안전, 유해환경 바꾸기 등의 이슈 중심으로 분화되면서 사회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는 분위기가 줄어들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이 부분별로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교류하면서 여성운동을 큰 틀에서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약해졌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이, 여성단체들이 어떠한 비전과 전망을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활동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연합이 그 역할을 많이 해 왔지만 최근에는 여연 회원단체 뿐 아니라 비회원단체이면서 진보적인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져서 개별단체들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1).

여성단체 활동을 한지 10년이 넘었다고 밝힌 <사례 11>은 최근에 여성단체들 사이에서 교류가 뜸해지고 네트워킹이 약화된 것이 여성운동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단체들이 정부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바빠졌지만 그 활동이 여성운동의 성장에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각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여성단체들끼리 네트워킹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여성단체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저희 단체는 2013년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의 미래를 그리고 싶었어요. 여성단체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도 각자 사업을 하다보면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2013년에 사업을 하면서 에코페미니즘, 지속가능한 사회를 화두로 젠더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여연 회원단체 뿐 아니라 비회원단체 활동가들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세부 그림을 그리는데 함께 했어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여성운동의 미래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사례 11).

여성단체들간의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한 시도는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사례 15>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성 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을 했는데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타 여성단체의 사업을 알고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성 주류화 정책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봐요. 하지만 성 주류화정책은 여성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고 새롭게 등장한 핵심 정책이라고 봐요. 정부가 성 주류화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성평등사회조성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알렸어요. 모니터링단에서는 대전YWCA임원, 여연 회원단체의 활동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도 함께 했어요(사례 15).

이 단체는 성 주류화 모니터링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성단체 활동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2012년에 대전 YWCA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3개 주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여성 이슈를 주제로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고 한다.

대전지역에는 여연, 여협, YWCA가 있는데 2012년에 여성주간 행사를 하면서 여성단체들이 모인 합창단을 조직했어요. 30여명의 회원들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고 준비하면서 서로를 알고 친분을 쌓을 수 있었어요. 저희 단체는 사업을 하면서 ‘여성주의의 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사업을 하면서 활동가들은 네 가지 기준에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첫째는 공무원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현장을 ‘여성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회원들의 삶 속에서 찾아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사회체계를 파악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여성과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시설, 삶의 공간을 여성들이 검토하자는 것이었어요(사례 15).

우리나라는 2000년 초부터 성 주류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도입된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등이 2004년 이후에 시행되었다. 성 주류화는 도입당시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으나,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무원 중심의 정책으로 안착되어 갔다. 이에 여성단체와 젠더 전문가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형 성 주류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YWCA가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은 여성단체 활동가와 공무원, 국회의원, 젠더전문가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간의 네트워킹,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와 같은 정책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2013년 기획공모사업의 주제를 ‘정책 모니터링’사업으로 정했으며 <사례 15>가 속한 단체는 성 주류화 모니터링사업을 주제로 기획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사례 21>과의 면접내용에 의하면, 한국여성재단의 기획공모사업 주제가 ‘정책 모니터링’으로 정해진 것은 성평등 문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성 주류화 모니터링 사업을 실제로 한 단체의 활동경험에 의하면, 이 사업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정책을 일반 여성의 관점, 시민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어서 특정 이슈에 관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드러내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본다. 또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여성단체들은 여성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킹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단체들간의 교류는 국내단체들로 제한되지 않는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 중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의 여성단체,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면서 네트워킹을 확장시켰다. <사례 11>이 포함된 단체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환경단체 사례를 연구하면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단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일본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에 사무국장과 교육활동가,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일본의 환경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여성 환경주의자들의 활동경험을 알 수 있었고 이후에는 아시아 여성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08년에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국내 여성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졌어요. 이어서 태국, 베트남, 라오스의 여성생산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가 만들어졌고, 그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성 활동가들이 3년간 공정무역 캠페인을 벌이면서 여성환경연대 사업과 분리해서 새롭게 그 사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사례 11).

외국 여성단체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한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1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일본의 환경단체가 한국을 방문했고 외국단체와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는 국내에서 할 만한 새로운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아울러 UN 등의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사업과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제가 일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일본의 환경단체를 방문해서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보았을 때, 흥미로운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교구 만들기를 일본 단체가 했던 것인데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아토피 예방사업, 먹거리 교육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사례 11).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외국의 여성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얻게 된 성과는 환경뿐 아니라 평화부문에도 해당된다. <사례 13>이 속한 단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젠더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를 국내에서 이슈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체의 대표님은 10여 년 전부터 UN의 1325결의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화운동 안에서 성평등 이슈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 우리 단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유엔이 1325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국내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해요. 마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우리 단체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네트워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성회가 1325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정부에 의견서를 발송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단체가 제안한 의견의 일부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인상 깊었고 사업담당자로서 보람이 느껴졌어요(사례 13).

한국 정부가 했던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초기 작업에는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여성·시민단체의 네트워킹의 힘으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구축하도록 꾸

준히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1325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YWCA등의 여성단체 뿐 아니라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부문운동을 하는 여성단체가 유관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는 한편, 해당 이슈를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전체 여성운동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인 것이다. 또한 여성운동이 지향하는 평등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해외 여성단체와 교류하려는 여성단체들의 목적은 여성활동가들 사이의 인적 교류 뿐 아니라 외국 여성단체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있다. <사례 13>이 속한 단체는 필리핀에 소재한 여성단체가 오래전부터 UN 1325결의안에 대응해 왔고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한 것을 알고 그 단체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사전에 단체사업에 관해 연구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단체는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필리핀의 여성정책 현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 세대 간의 소통활성화, 회원 재생산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여성단체들이 1980년대 말에 설립되었고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활동가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젊은 층의 회원들이 극히 적다. 이에 <사례 17>이 속한 단체에서는 20대, 30대의 여성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여성단체 활동을 15년간 해 온 <사례 17>은 여성운동이 연령 차이를 넘어서 폭넓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한국여성재단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래된 여성단체들은 활동가들도 연령층이 높아요. 젊은 친구들이 단체에 들어와야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신입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체가 계획하고 '신참 활동가'들에게도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여성재단이 신참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어요(사례 17).

이 단체는 지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했고 2004년에 ‘여성정치발전소’를 개소했으며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4년 연속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여성단체에서 교육받은 회원 중에서 일부 회원들은 2006년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다. 이때 20대, 30대 여성들이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이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여성 활동가들을 위한 리더십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젊은 회원들과 중견 회원들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단체의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하였다고 한다. 정치지도자 양성교육을 받았던 회원 중의 일부는 인근 지역에서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여성단체를 설립하였다.

2004년에 저희 단체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은 4년간 연속지원을 받았습시다. 여성리더십을 키우고 지역 내 여성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이었는데 20대, 30대 여성들이 그 교육에 관심을 보였고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주의, 여성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일부 여성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젊은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단체가 활력을 갖게 되었다고 봐요(사례 17).

단체의 설립연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단체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례 4>가 속한 단체는 198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지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 단체는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모금사이트인 ‘해피 빈’에서 ‘낙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체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SNS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우리 단체 사업을 홍보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용어부터가 톡톡 튀어야 해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요. 낙태 이슈는 다큐멘터리, UCC를 만들어 공동상영회를 했는데 호응이 컸어요.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활동과 성형반대 활동을 하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때 민우회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회원이 되었고 우리가 인터뷰 방법을 알려주어서 직접 인터뷰하도록 했어요.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지요(사례 4).

이와 같이 일부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20대, 30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이 해

당 사업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면서 여성단체의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성평등, 여성주의의 확산

(가) 여성주의 부활 프로젝트 만들기

성평등, 여성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단체들이 여성주의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부활시키는 작업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예고한다. <사례 19>가 속한 여성단체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줌마 글쓰기 프로그램’을 2009년에 수행했고 ‘동네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 단체는 평범한 주부이면서 자기성찰에 관심 있는 3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활동을 벌여왔다.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처음에 ‘여성주의’라는 용어를 낯설어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여성학, 여성주의를 알게 되었고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주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대중적 언어로 여성주의를 표현하고 싶어 했고 그 여성주의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동네잡지’를 만든 회원은 “유연한 감수성에 눈 떠보면 동네에는 반갑고 재미있는 글감들이 수두룩하다. 잡지를 통해 사람간의 거리를 좁히고 낯선 곳이 친숙한 공간으로 변한다. 잡지를 만드는 사람들과 읽는 이 모두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 만든 열두 권의 개인잡지는 아줌마들이 지역 문화활동가들을 만나 숨겨진 열정을 찾아내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주간경향, 2012.7.24.). 이 단체의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연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정정도 사업의 결실을 가져왔다고 보인다. 한국여성재단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글쓰기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이 단체는 여성주의를 일반 여성들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본다.

<사례 4>가 속한 단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UCC 동영상물 제작, 사례집과 책자를 발간하면서 여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여성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책들은 여성주의를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서 여성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주의 관련 책’을 출판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주의

를 알리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이 단체는 낙태, 성형반대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다르니까 아름답다’, ‘똥똥해서 죄송하다’는 익살스러우면서도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언어와 담론을 만들어 왔다.

(나) 온라인상의 성평등, 여성주의 확산

온라인상에서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젊은 세대를 겨냥하는 활동일 뿐 아니라 상당한 파급력을 예고한다. <사례 18>이 속한 단체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여성주의 저널’을 표방하였고 인터넷에서 보다 자유로운 여성들의 글쓰기와 네트워킹을 지향하는 실천활동을 벌여왔다.

저는 여성단체의 설립목적이 여성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성재단이 만들어졌으니 재단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를 갖지 못한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많이 선정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성주의 운동은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네트워크가 여성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오래된 여성단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재단이 젊은 층이 주도하는 여성단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사례 18).

일부 여성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느라 분주한 분위기에서 이 단체는 정부지원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후원자들이 내는 회비에 의존해 왔다. <사례 18>에 따르면, 아름다운 재단 등의 민간재단으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여성주의를 전면에 표방하면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지원받는 일은 어렵다고 한다.

저희 단체는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2년간 지원받으면서 연간 1천 3백만원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할 수 있었어요. 단체의 활동목적은 “주류미디어에 대안으로서의 대안 매체”만 들기였지요. 재정적인 한계가 뚜렷했어요. 광고영업을 하지 않으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독자들의 자발적인 구독료, 즉 후원금을 통해 운영해 왔고, 적은 액수지만 콘텐츠 판매료나 1년 한두 번의 행사 수익 등이 기본 재정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사로서의 체계를 갖추기는 어려웠지요(사례 18).

(3) 지역사회와의 소통, 여성운동의 영향력 확대

(가) 풀뿌리 사업(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의 활성화

풀뿌리 단체는 대변형 NGO의 운동방식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성찰 속에서 90년대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은 시민단체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 ‘자율적인 소모임과 자치활동’의 확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부모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사업 등으로 풀뿌리 단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 풀씨넷에서 2013년 1월에 발간한 ‘서울시의 풀뿌리 시민단체의 생태지도’는 서울의 25개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들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회원이 100명이상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풀뿌리 조직들과 신생조직들이 누락되었지만 한 구(區)당 평균 304개의 단체들이 회원수 100-200여명 규모로 활동하고 있다(이정수, 2013: 12). 이 단체 중에는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단체가 소수 있으며 단체들 중에는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풀뿌리 여성단체가 참여하면서 여성주의를 지역 사회에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풀뿌리는 찾아가는 운동이며, 회원의 다수가 전업주부예요. 마을 활동가 중에는 20-30대 여성이 있으며 풀뿌리 단체의 상근자로 있다가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풀뿌리운동에서 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촉진시키는 여성활동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 우리 단체가 하는 풀뿌리 사업을 지원받았지만 여성재단이 풀뿌리운동의 확산을 위해 여성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풀뿌리 단체가 성장하려면 1-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성재단이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고 그 활동가가 풀뿌리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낸다면 성평등 사회조성사업에 대한 기부자들의 신뢰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사례 1).

이 단체는 풀뿌리 여성운동의 확산을 위한 매뉴얼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풀뿌리 단체 공동 워크숍’을 이전에 개최한 것이 있다고 한다. <사례 1>에 따르면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교육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풀뿌리 단체 활동가들이 순환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을 공동체 상근자가 여성단체 활동가로 자리를 옮기는가 하면, 여성단체 활동을 하다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상근자로

활동하는 여성들의 성평등 의식향상을 위해서 한국여성재단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모임, 풀뿌리 단체의 회원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풀뿌리 단체는 작은 마을 단위로 활동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구 단위보다도 더 작은, 걷는 거리 15분 범위의 마을을 단위로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부모 커뮤니티의 경우 ‘주민 3인’만 모이면 ‘부모커뮤니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자녀교육(인성, 대안교육 등)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엄마들의 의식이 개선된다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이 기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다수가 주부여서 낮 시간 모임이 많은 편이에요. 주부들이 많다보니, 성별분업을 다루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이 나서서 ‘여성을 주체로 바라보기’, ‘나의 욕구 찾기’, ‘나의 꿈’, ‘나의 일자리’ 등을 주제로 토론타다보면, 소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주체 의식을 갖고 활동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사례 1).

이 단체는 지역 여성단체들을 여성주의 풀뿌리운동의 파트너로 여기고 관계망을 만들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학 강사, 여성운동 활동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신생 풀뿌리 단체의 경우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사진, 단체 조직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며, 이는 여성주의 풀뿌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운동가나 여성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여성운동의 풀뿌리 지향성을 시도하는 단체들이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전국 풀뿌리 여성대회를 개최할 경우 전국에 있는 100개 단체에서 200여명이 모일 것 같아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풀뿌리단체의 사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센터는 젠더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풀뿌리운동을 지향하는 개별단체들은 의제별 연대가 필요하며, 풀뿌리 여성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여성재단이 성평등조성사업의 기획공모사업에서 풀뿌리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어요(사례 1).

실제로 여성주의 풀뿌리운동은 내부에서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풀뿌리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의 다수는 전업주부로 자신의 정체성이 어머니와 아내에 두어져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독립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여성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전업 주부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고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1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단체 활동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여성운동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풀뿌리 여성운동은 사업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단체 활동가와 풀뿌리단체 활동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성운동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풀뿌리단체 여성 활동가들과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성운동의 기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홍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의 개선에 관한 의견도 많습니다. 여성들이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일상활동에서 풀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마을이다’에 젠더이슈를 통합하고 젠더를 엮는 방법을 고민한다면 풀뿌리 여성운동이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사례 1).

풀뿌리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운동이 ‘여성들의 작은 모임’으로 서로 네트워킹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은 개별이 아닌 집단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풀뿌리 단체, 지역의 소모임 5-10개를 모아서 지역별, 의제별로 컨설팅을 한다면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여성운동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례 2>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10여 년간 해온 활동가이면서 여성주의와 성평등을 일반 여성들에게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임파워먼트, 여성이슈의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운동 상층부가 주도하여 ‘법 바꾸기’운동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여성들에게는 여성정책이 친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여성은 ‘젠더 거버넌스’가 햄버거 이름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웃더군요. 10년 가까이 풀뿌리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성단체 중에서 풀뿌리운동을 했던 단체들은 사업주제와 사업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고출 출신의 여성이 접근할 수 있고 여성주의를 이해할 수 있

는 여성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주의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사례 2).

<사례 2>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풀뿌리여성운동이 시대변화에 맞게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풀뿌리단체들의 우산단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단체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단체협의회, 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으로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강북지역풀뿌리단체협의회,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강북지역의 경우 이미 10년 이상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펼쳐져 왔다. 공동육아, 민간도서관, 방과후교실, 생협, 문화, 시민운동을 비롯해 여성회, 청소년까지 그 영역도 다양하다. 관련 단체나 시설이 20여개나 넘고 각자의 전문성과 활동공간을 구축해 왔다고 한다.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풀뿌리 여성운동을 실천해 온 <사례 1>과 <사례 2>는 풀뿌리운동, 공동체운동이 성평등과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골목길 행사

<사례 19>가 소속되어 여성단체는 2013년 11월에 그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벼룩시장을 열었다. 이때 텐트를 치고 여성관련 영화를 상영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벼룩시장에서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회원들이 찍은 사진과 글을 전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골목 전시회를 했는데 평일 12시에서 6시까지 골목길에 천막을 치고 벼룩시장을 열면서 전시회를 하였다. 골목길을 오가는 동네주민들이 구경했고 인디밴드를 초청해서 골목음악회를 했다고 한다.

단체회원들이 모여서 도시의 마을잔치를 ‘게릴라식’으로 했어요. 음악회, 전시회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단체가 있는 동네, 마을, 골목길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여러 번 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2년 연속 지원받았는데 아줌마회원들이 글쓰기 훈련을 받고 영상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했어요. 회원들은 여성주의 영상물을 만드는 작업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지요. 하지만 경

힘이 많은 여성감독들이 도와주어서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영상물을 만들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회원들은 '제작의 끝은 상영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상영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사례 19).

주부회원들이 많은 이 단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여성들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삶을 영상물에 담는 작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단체 회원과 여성연출가들이 함께 만드는 여성주의 영상물 제작은 개별적이면서도 일회적인 활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던 결과물들이 골목길 행사에서 쓰이는 전시물이 된 것이다. 베품시장을 하면서 이 단체의 회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성관련 영상물을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성주의와 성평등한 문화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확산시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는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을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이 만들어 내는 산물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변화시키려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본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운동의 성장이란 아줌마들의 활동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공감대를 만들고 여성주의 글쓰기를 배우면서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전시물로 만들고 지역신문에 내어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동네에는 반사회모임, 부녀회모임, 아이 친구 엄마들의 모임에 만족하지 않는 여성들이 적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이 성교육'에만 관심이 있었던 엄마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요. 평소에 가졌던 '답답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을 찾게 되면서 만족하거든요(사례 19).

다) 사업의 평가과정 : 후속작업을 통한 여성운동의 성장

(1) 신규사업의 인큐베이팅과 확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에는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확대시킨 경우도 있다. <사례 16>이 속한 여성단체는 광주지역에서 성매매 관련 사업,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해 왔다. 가출 청소년들은 성희롱,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

는 상황이어서 이 단체는 그들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방문해서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였다.

가출청소년들은 2-3세 연상의 남자들과 혼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오게 하려면 남자친구들도 함께 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의 대상이 청소년에서 청소년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연령층도 19세 미만에서 24세미만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대전에 가서 가출 청소년 사업을 해본 분들을 만나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가출청소년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사례 16).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연속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인지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가출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아지트 팀이 있었고 그 팀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평가하면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고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적은 사업,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는 결과물이 보이는 사업 등을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례 16>이 속한 단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기회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단체가 사업을 하면서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문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처음에 매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지트사업이라고 했던 이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아요.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여성재단 배분위원이라고 하셨던 분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저희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해주셨어요. 그 분은 단체가 하는 사업의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활동가들이 방향을 잘 잡아가면서 하고 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자문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사례 16)

이 단체는 한국여성재단으로부터 매년 1,500만원을 지원받아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로부터 연속 지원

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아지트사업(가출청소년을 위한 빨래방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여성재단이 이 단체에서 새롭게 계획한 사업의 예상되는 효과를 믿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즉 신규사업을 여성단체가 할 때, 한국여성재단은 사업비 뿐 아니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2) 해외 여성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신규사업 발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 글로벌 분야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의 여성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그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다. <사례 20>이 속한 단체는 2012년에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모이는 행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다. 이 국제행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의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도가 높은 행사이다. 이때 저개발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고, 이 단체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제공한 것이다.

제가 이 단체에서 상근자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제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척박한 환경에서 여성들을 위해 활동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려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행사의 주요 이슈는 성차별, 여성폭력, 위안부 문제 등이었는데, 단체 대표들이 참가해서 각국의 여성들이 처한 사정을 발표했어요. 항공료와 체류비를 지원받고 이 행사에 왔던 여성단체 대표들이 한국에 감사하다고 했고 이후에도 국내 여성단체들과 계속 교류하고 싶어 했어요(사례 20).

이 행사는 당시에 외국인 3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으며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저개발국가 여성단체의 대표들은 20명이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회원단체들이 직능단체로, 젠더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선거 시기에 이 단체는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 YWCA 등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면서 해외 여성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례 11>은 특정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 국제단체와의 교류활동에서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사회운동의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재단의 지원을 받고 일본의 환경단체를 방문했어요. 그 단체를 주도하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함께 일본에 갔던 친구 중에는 일본단체가 벌여왔던 여러 사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방문했던 일본단체가 한국에 와서 저희 단체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조언도 얻었어요. 외국의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이슈에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단체와의 교류가 국내의 큰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여성단체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고 외국의 여성단체들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사례 11).

이와 같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던 파트너단체들 중에는 외국의 여성단체를 방문하고 해당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의 여성단체와 교류하면서 그 단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거나 관련 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한국의 여성단체, 여성운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단체의 네트워킹을 해외로 확대하면서 여성운동의 외연을 넓히고 글로벌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국 여성단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외단체와의 교류는 파트너 단체들의 후속작업을 통해서 해당사업이 단기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여성운동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단체의 사업영역과 사업대상 확대

여성단체 중에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마무리하는 평가를 하면서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해당사업을 운영하거나 확대한 경우가 있다. <사례 17>이 속한 단체는 2004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을 시작하였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교육사업을 했고 당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한국여성재단의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단체는 그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자비부담으로 지속하여 단체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성평등사업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0대 여성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의 정치교육 등이 실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단체가 미래세대의 여성운동을 짚어질 소녀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대상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례 12>가 속한 단체에서는 2013년도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여성운동의 운동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는가? 라는 물음을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재단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모델사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정치캠프는 차세대 여아들이 정치와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재단이 ‘seed 사업’을 개발해서 여성운동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사례 12).

이 단체는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 했던 ‘마을카페 수다토크’는 풀뿌리운동을 지향하는 지역단체들과 공동주관하여 수행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온 여성의원들이 자신들의 활동경험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이 지역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토론을 이어왔다. 이것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초기에 이 단체가 했던 청소년 대상의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면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우수사례 소개

가. 우수사례의 선정과정

한국여성재단은 12년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총 19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사례들을 사업의 성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단체이면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둘째, 소외계층, 비주류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셋째,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고 성평등 문화를 알리는 사업들이다. 이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 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성장시키려는 한국여성재단의 ‘개미 기부자’들에게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재단은 2002년부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년 우수단체를 선정해 왔다. 선정과정은 이 사업에 참여한 파트너단체들이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보고서를 취합해서 심사한 다음, 우수단체를 정하는 것이다. 매년 적게는 1개 단체, 많게는 4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우수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여성재단이 위촉한 심사위원 2인이 정해진 심사표에 따라서 단체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긴 다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을 수행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된다. 평가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단체는 차년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가산점)를 부여받게 된다. 다음은 2013년 기준 한국여성재단이 정한 자유공모사업 서류심사 배점표이다.

〈표 15〉 2013년 자유공모사업 평가기준

심사영역	심사 참고사항
가. 사업추진의 적절성 (10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가 계획에서 제시한 대상자와 일치하는가?
	사업장소와 사업수행 시설 및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사업 추진계획 대비 사업 추진 세부내용이 단계별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추진하였는가?	
	외부자원(전문가, 지역 관련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나. 사업 목표의 달성여부 (10점)	사업 추진계획 대비 세부내용별로 사업수행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사업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도구가 적절한가?	
	사업 달성 목표의 수치와 질적 수준이 높은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사업목표 달성여부가 잘 드러나 있는가?	
다. 사업의 영향력 및 기여도 (10점)	향후 본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가?	
	사업에 참여한 사업 대상들의 변화가 유발되었는가?	
	직접 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개인적 상황이나 문제해결에 기여한 바가 높은가?	
	해당사업 취지(성평등사회 조성, 여성단체가 만드는 성평등한 정책 만들기)에 진행한 사업이 적절한가?	
라.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절차 준수 (10점)	본 사업이 조직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냈는가?	
	본 사업이 여성운동 및 여성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아젠다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는가?	
마. 종합평가 (10점)	모든 예산집행이 계획서대로 집행되었는가?	※ 사무처 의견서 참조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수행 회계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마. 종합평가 (10점)	재단 사업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사무처 의견서 참고)	
	한국여성재단 사업(홍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사무처의견서 참조)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심사표에 기초하여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한국여성재단이 매년 정하여 12년간 누적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우수단체를 보면, 2002년에는 1개 단체, 2003년에는 2개 단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속해서 1개 단체였다가 2010년에는 2개 단체였다. 2011년에는 무려 5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는 1개 단체, 2013년에는 2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었다.

〈표 16〉 연도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파트너단체(2002-2013)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	2002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모델 개발 프로그램
2	2003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소년 정치캠프,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꿈꾸며
3	2003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 아카데미
4	2004	제주여민회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아파트 - 두 번째
5	2005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교육 인형극단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호호아줌마랑놀자!”
6	2006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단 보수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7	2007	전국여성노동조합	비정규직 여성 힘내라! 전국 캠페인 및 이동 상담
8	2008	울산여성회	여성주의 지역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9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6회생존자말하기대회 : 분노와 희열을 노래하 "Speak out in Chorus"
10	2010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함께 행복해지는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11	2010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교육을 통한 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12	201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영상자료를 활용한 성평등 교재 개발 및 제작
13	2011	언니네트워크	비혼 세대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프로젝트: 비혼 PT 나이트
14	2011	한국여성노동자회	빈곤여성 리더십 강화 및 돌봄여성노동자 권리향상 프로그램
15	2011	한국여성민우회	[2011 새롭게 쓰는 낙태 이야기] -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16	2011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	또 하나의 우리집 "교육문화센터" - 여성들이 만들어 나가는 교육.문화 공동체세상
17	2012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정치격동기 2012] 직접행동 여성시민! 젠더감수성 충전 프로젝트
18	2013	일다	'나의 페미니즘'을 소통하라
19	2013	한국여성민우회	2013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

나. 우수사례의 주요내용

1) 지역사회 내 성평등 확산을 위한 활동사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우수단체로 선정된 단체 중에는 지역단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총 19개 단체 중 지역에 소재한 단체는 전북여성단체협의회(2003), 제주여민회(2004), 충남성폭력상담소(2005), 충남성폭력상담소(2005), 울산여성회(2008), 부산여성회(2010),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2011)로 총 7개이며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체들의 대부분은 2011년 이전에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는데, 우수단체로 선정된 사례 7개의 주요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수사례 1>

지역 여성영화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대중문화와 여성주의 관점을 접목시키다!

◎ 사업명 :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 아카데미

- 단체명 :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 단체소재지 : 전북
- 지원연도 : 2003년
- 사업예산 : 12,950,000원
- 사업목적 :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성 주체성을 회복하며 남성중심의 영화산업의 구조 속에서 여성영화인력의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한다. 특히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려는 지역 여성영화인력에게 성 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통해 여성전문인으로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사업내용 : ①여성영화 아카데미 강좌실시 ②제작지원작 심사 및 선정
- 사업성과 : ①지역에서 개설된 최초의 여성영화아카데미이며 그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문화와 여성적 관점이 접목된 강좌라는데 의의가 있다. ②여성영화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터넷 다음 카페에 [여성영화터]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으며, 9월부터 준비된 수료생들의

모임체가 결성되어 현재까지(2004년 1월) 여성관련 영화, 서적 등에 대한 토론 모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③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일률적으로 해석되어온 여성의 경험과 삶에 의문을 품고 여성자신이 주체가 되어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
<우수사례 2>
여성단체가 아파트 부녀회와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나서다!

- ◎ 사업명 :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아파트 - 두 번째
 - 단체명 : 제주여민회
 - 단체소재지 : 제주도
 - 지원연도 : 2004년
 - 사업예산 : 8,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평등·평화의 감수성을 지닌 여성들이 긴밀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삶과 고민들을 나누며, 소통하여 연대감과 자매애를 강화한다. 또한 리더십 훈련, 지역봉사, 전문성 함양 등 지도력 향상 교육을 통해 지역의 여성지도력을 발굴, 양성하며 이를 지역여성운동 과제로 이끌어냄으로써 생활의 문제를 발굴한다.
 - 사업내용 : ①추진지역 사업설명회 및 실무팀 구성 ②여성지도력 향상교육 “여성이 만드는 아파트 문화” ③평등·평화 여성수다방2 “김미화와 함께하는 평등·평화 여성수다방” ④여자들끼리 떠나는 하루나들이 “생명·평화” ⑤나누면서 함께 하는 우리동네 거저한마당
 - 사업성과 : ①추진지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실무팀을 구성,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부녀회의 지도력 강화와 활동을 지원하였고, 아파트부녀회협의회를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평등평화여성수다방, 여자들끼리 떠나는 하루나들이, 나누면서 함께 하는 우리동네거저한마당 등의 사업에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높았다. 지역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여민회와 부녀회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
<우수사례 3>

어린이성폭력인형극을 순회공연하면서 단체의 브랜드사업을 발굴하다!
.....

◎ 사업명 : 어린이성교육 인형극단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 단체명 : 충남성폭력상담소
- 단체소재지 : 충남 천안
- 지원연도 : 2005년
- 사업예산 : 8,000,000원

■ 사업목적 : 상담소는 늘어나는 어린이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성교육인형극단’ 동호회를 운영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에 인형극 관련 전문가를 섭외, 인형극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이를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어린이 성교육 및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성폭력 예방인형극을 제작하여 천안지역의 각 어린이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린이성폭력예방교육방법의 일환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 사업내용 : ①제1기 어린이성교육인형극단 구성을 위한 전문교육 ②제2기 어린이성교육인형극단 소모임 운영 ③어린이성교육인형극 순회공연

■ 사업성과 : ①어린이성폭력예방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형극이란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흥미유발을 함으로써 어린이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기법의 한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었다. ②최초 인형극단을 조직하고 활성화하기까지 초기비용은 다소 높으나 이후 천안을 비롯 충남권내 어린이들이 비용 부담 없이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인형극을 손쉽게 접할 수 있음을 물론 우리 상담소를 이음하는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③상담소의 자원인력 뿐 아니라 고급여성인력을 발굴해 교육 이후 사장되어 버리는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컸다.

.....
<우수사례 4>

지역 보육시설에서 순회공연하면서 어린이성교육 방식을 바꾸다!
.....

◎ 사업명 : 어린이성교육 인형극단 보수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 단체명 : 충남성폭력상담소
- 단체소재지 : 충남 천안
- 지원연도 : 2006년
- 사업예산 : 7,191,000원
- 사업목적 : 상담소가 기존에 했던 1회적인 성교육 방식을 바꾸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의 틀로써 자리 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천안지역 내의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어린이성교육인형극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배출된 1기 인형극단원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2기 인형극단원 모집을 통한 인원보충 및 전문강사를 섭외, 인형조직기법과 무대 연출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 내 성교육인형극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한 외부공연 및 인형극제에 참가하여 인형극 활동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와 함께 대내외적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충남 전 지역을 활동무대로 포함하여 전문성교육인형극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업내용 : ①어린이성교육인형극단 보수교육 및 제2기 인형극단구성을 위한 전문교육 ②1,2기 소모임 운영 ③어린이성교육인형극단 순회공연 ④대외활동 : 어린이성교육인형극 정기공연 및 아마추어인형극제 출전
- 사업성과 : ①올 한해 제1기 극단원의 어린이성교육인형극의 순회공연과 제2기의 어린이성교육인형극 순회공연 및 외부공연까지 지역 내 많은 보육시설에서 어린이 성교육인형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문의전화의 많았으며 한 기관에서 관람이 어려울 경우 타 보육시설과 연합하여 관람신청을 하여 적극적인 관람의지를 보이는 등 지역 내 관심도가 높아 앞으로 어린이성폭력 예방인형극 공연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②춘천인형극제와 외부공연 등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1기와 2기 극단원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고 큰 행사를 치루면서 자연스럽게 단합이 이루어지

고 인형극 대회 및 외부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또한 극단원들에게는 자신감을 물론 타 극단들의 인형극을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구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2기의 순회공연을 돕기 위해 1기가 조를 편성하여 최종리허설까지 챙겨줌으로써 1·2기의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었다.

.....
<우수사례 5>

여성주의 문화해설사를 양성, 문화체험 콘텐츠를 개발해서 여성주의 문화 운동을 확산시키다!

◎사업명 : 여성주의 지역문화해설사 양성과정

- 단체명 : 울산여성회
- 단체소재지 : 울산시
- 지원연도 : 2008년
- 사업예산 : 10,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울산여성회 체험강사단과 울산지역 문화해설사들에게 여성주의 역사를 교육함으로써 여성을 수동적인 교육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문화해설사가 아닌 성평등의 시각을 갖춘 새로운 여성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업내용 : ①여성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기획실행팀 구성 ②여성문화해설사 양성프로그램 ③울산여성문화유산답사 기획실행팀 구성 ④울산여성문화투어 ⑤여성문화인과의 난담
- 사업성과 : ①여성주의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식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②여성주의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팀을 구성하고 울산여성문화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여성주의 문화운동을 확산시켰다.

.....
<우수사례 6>

마을 성평등 강사단이 성평등 문화확산의 중심에 서다!
.....

- ◎ 사업명 : 성평등한마을만들기 “함께 행복해지는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 단체명 : 부산여성회
 - 단체소재지 : 부산시
 - 지원연도 : 2010년
 - 사업예산 : 10,000,000원
 - 사업목적 : ❶성평등 문화를 풀뿌리 마을사업에서부터 만들어 성평등한 마을 공동체를 실현한다. ❷마을 활동의 주체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마을 성평등강사단을 구성하여 성평등 문화확산의 마을리더그룹을 만든다. ❸마을에서의 교육과 실천활동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가정과 가정의 소통,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마을행사를 통해 성평등 가족문화 정착을 만든다.
 - 사업내용 : ❶마을 성평등강사 양성교육 ❷성평등 마을학교 ❸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평등 마을잔치’와 ‘평등가족 영화제’ ❹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성평등이야기 ‘빛그림 공연’
 - 사업성과 : ❶마을 성평등강사단이 구성되었고 마을주민들과 성평등을 주제로 교육, 마을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❷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용과 형식이 잘 갖추어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을에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주민단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
<우수사례 7>

단체회원들이 부모모임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풀뿌리 여성운동의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다!
.....

- ◎ 사업명 : 또 하나의 우리집 “교육문화센터”-여성들이만들어어나가는교육, 문화공동체세상
 - 단체명 :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

- 단체소재지 : 대전시
- 지원연도 : 2011년
- 사업예산 : 10,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여성운동 활동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한편, 풀뿌리 방식의 여성운동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업내용 : ①대전여성회 사무실과 부설 방과후 공부방 ‘행복한 교실’을 설립하여 운영 ②지역주민 대상의 홍보활동과 학부모강좌 진행 ③문화예술동아리 활동(다도, 연극 등)을 지원 ④풀뿌리 여성운동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⑤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
- 사업성과 : ①풀뿌리 여성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문화 교육공간이 생겼다 ②대전여성회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널리 홍보하는 거리공연, 홍보물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단체활동을 홍보하였다 ③회원들이 동아리모임, 행복할 교실 교사모임, 행복한 교실 부모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풀뿌리 여성운동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었다.

2)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활동사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우수단체로 선정된 사업사례 중에는 비정규직 여성, 성폭력 피해여성 등의 취약계층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재해석하고자 활동했던 사업이 포함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여성 힘내라! 전국캠페인 및 이동 상담”(2007), 한국성폭력상담소의 “6회생존자말하기대회 : 분노와 희열을 노래한 ‘Speak out in Chorus’”(2009),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성교육을 통한 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2010),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빈곤여성 리더십 강화 및 돌봄여성노동자 권리향상 프로그램”(2011) 총 4개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우수사례 1>

동시다발의 전국 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알리다!
.....

- ◎ 사업명 : 비정규직 여성 힘내라! 전국 캠페인 및 이동상담
 - 단체명 : 전국여성노동조합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07년
 - 사업예산 : 10,000,000원
 - 사업목적 : ❶비정규직 여성에게 꼭 필요한 법적 권리, 복지정책 등의 정보를 홍보한다. ❷사회양극화의 가장 밑에 있는 여성비정규직의 상황에 대해 문화적이고 대중친화적인 방식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 사회통합력을 높인다. ❸비정규직 여성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캠페인을 진행하여 동료들 지원하는 보람과 리더십을 갖도록 한다.
 - 사업내용 : ❶비정규직 여성의 권리 찾기 리플렛 배포 ❷시기별로 최저임금, 모성보호, 비정규관련법, 4대보험, 정부지원복지정책 등 다양한 주제의 권리찾기 선전전 ❸전시, 노래,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식과 결합한 캠페인 ❹이동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직접 상담 또는 이후 내방 및 방문 상담 ❺대전충청, 부산, 광주전남, 경기 등 총 9개 지역 캠페인 진행
 - 사업성과 : ❶캠페인을 통하여 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알려내었다. ❷캠페인과 함께 이동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법적 권리 행사에 접근이 어려웠던 여성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대응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재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우수사례 2>

성폭력피해자들이 공동창작 작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치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반성폭력운동의 가능성을 찾다!
.....

◎ 사업명 : 6회생존자말하기대회 : 분노와 희열을 노래한 “Speak out in Chorus”

- 단체명 : 한국성폭력상담소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09년
- 사업예산 : 15,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그동안의 생존자말하기대회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승하여 ‘피해에 대한 말하기’를 노래로 공동작업하여 창작하고, 이를 무대공연화함으로써 생존자의 말하기를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한 문화적 자료로 만들고, 새로운 치유의 방식을 개발해서 사회적 공감을 확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업내용 : ①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 및 홍보 ②말하기대회 참가자 모집 ③치유하는 글쓰기 워크숍 진행 ④몸(즉흥극) 워크숍 진행 ⑤곡작업 및 공연 연습, 듣기참여자 모집 ⑥6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Speak out in Chorus”
- 사업성과 : ①성폭력 피해생존자가 개별적으로 상담지원 받는 것을 넘어, 집단적인 자조모임을 이루어 자발적 치유과정을 기획하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 유동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주체적인 전문가 집단, 활동가 그룹이 될 수 있었다. ②총 다섯 곡의 창작 노래 발표, 연극, 즉흥춤 기획 및 공연, 영상작업, 사진작업(팸플릿에 작업 내용 수록)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의 정형화된 모습을 탈주하여 다양한 역동과 감정, 과정을 다양한 노래로 만들고 자유자재의 무대로 기획함으로써 단편적인 성폭력과 생존자에 대한 통념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③말하기대회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폭력이 존재하는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었다. ④프로그램 강사, 여성주의 뮤지션과의 문화적 생산과 유희활동을 통해 개별인 여성 혹은 집단적인 여성들의 마인드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반성폭력 운동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
<우수사례 3>

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다!
.....

- ◎ 사업명 : 성교육을 통한 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 단체명 :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단체소재지 : 충남 천안
 - 지원연도 : 2010년
 - 사업예산 : 14,877,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정적인 성행동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생활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사업내용 : ①장애인 복지시설 3개 기관에서 성교육, 미술치료, 개별상담 ②정신요양시설 3개기관에서 성교육, 미술치료, 개별상담 ③특수학급 3개 기관에서 성교육, 호신술, 개별상담
 - 사업성과 : ①장애인복지시설 3개 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집단평균변화가 30%이상이었다. ②정신요양시설의 1개 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집단평균변화가 20% 이상이었다. ③특수학급의 경우 장애아동이 있는 초등학교 5개교, 장애청소년이 있는 중고등학교 3개 교에서 대상자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집단평균변화가 20%이상으로 성교육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사례 4>

돌봄여성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리더십 향상교육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다!
.....

- ◎ 사업명 : 빈곤여성 리더십 강화 및 돌봄여성노동자 권리향상 프로그램
 - 단체명 : 한국여성노동자회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1년
- 사업예산 : 14,000,000원
- 사업목적 : ❶ 지역과 업종을 넘어 빈곤여성 집단 리더십 교육을 통해 입과 위먼트를 형성한다. ❷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빈곤여성들의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을 통해 국가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꾀한다.
- 사업내용 : ❶ 빈곤여성리더십강화 프로그램 ❷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
- 사업성과 : ❶ 교육과 참여형 리더십 교육을 통하여 사회변화의 주체는 ‘나’임을 인식하고 토론과 발표를 통해 빈곤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벗고 삶의 주체적 존재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❷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돌봄노동 사회인식개선캠페인을 통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었다. ❸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은 돌봄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풀어내는 문화한마당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이들을 하나로 결속하게 하는 행사가 되었다.

3) 대안적 여성주의 담론생산을 위한 활동사례

19개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례 중에는 여성주의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보이는 사업들이 있다. 이것은 녹색삶을위한여성들의모임이 수행한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역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모델개발프로그램’(2002), 여성정치세력연대의 ‘청소녀 정치캠프,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꿈꾸며’(2003), 언니네트워크의 ‘비혼세대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프로젝트 : 비혼PT나이트’(2011), 서울여성국제영화제의 ‘영상자료를 활용한 성평등 교재개발 및 제작’(2011), 한국여성민우회의 ‘[2011새롭게 쓰는 낙태이야기]-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2011),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의 ‘[정치격동기 2012] 직접행동 여성시민! 젠더감수성 충전 프로젝트’(2012), 일다의 ‘나의 페미니즘을 소통하라’(2013), 한국여성민우회의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2013) 으로 총 8개 사례이다. 이 사례들의 사업내용과 사업성과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우수사례 1>

지역 여성들의 관심사에 따라 소모임을 구성하고 풀뿌리 여성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성학습동아리 모델을 개발하다!
.....

◎ 사업명 :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역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모델개발프로그램

- 단체명 :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2년
- 사업예산 : 6,345,000원
- 사업목적 :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 지식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특히 지역여성)들은 배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취미, 교양 활동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여성들이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성취감,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여성의 삶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실천활동·발표회 등을 병행하여 지역 사회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업내용 : ①지역여성의 NGO 연구반 모임[NGO는 내친구] ②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아이들의 미래 도우미] ③녹색마을을 가꾸는 주부들의 모임[오래된 미래] ④아이들의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모임[동화 사랑방] ⑤차세대 지역운동의 리더십을 키우는 모임차세대 리더십 키우기] ⑥학습동아리 발표회
- 사업성과 : ①학습동아리 활동이 단순히 공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더 높이게 되었다. ②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강화된 자신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토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방과후 교실 운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 지역환경교육 전문가,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및 기획가 등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③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자원들간이 Net-Working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

게 되었다. ❶시정개발연구원 및 타 시민단체에서 본 학습동아리 모델을 조사 연구해 감으로써 타 지역 풀뿌리 민간단체의 새로운 여성 학습동아리 모델로 제기되었다.

.....
<우수사례 2>

청소년 정치캠프에 참가한 소녀들에게 여성 정치참여와 성평등의 당위성을 체험하게 하다!
.....

◎ 사업명 : 청소년 정치캠프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꿈꾸며”

- 단체명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03년
- 사업예산 : 12,000,000원
- 사업목적 : 국회와 청와대를 견학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의 롤모델을 제시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바람직한 리더와 정치인상에 대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 나아가 차세대 리더로서의 기대와 의지를 심어주어 지도자로 성장할 자신감을 갖게 한다.
- 사업내용 : ‘청소년정치캠프’는 서울, 경기,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및 언론 홍보를 통해 모집된 123명의 참가자를 8조로 나누어 7월 24일~25일 1박2일로 진행되었다. 정치현장방문 프로그램과 서울여성플라자에서의 강의, 조별토론, 조별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업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등을 견학하고, 영부인, 여성국회의원, 여성시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및 양성평등에 관한 모듬별 토론 및 발표로 진행되었다.
- 사업성과 : ❶ 언론홍보(조선일보, 중앙일보, 내일신문 등)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서 참가자 모집과 단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❷ 영부인 권양숙 여사, 이연숙 국회의원, 유선목 서울시의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참가한

학생들에게 롤 모델을 제시해주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남겨주었다. ③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진행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참가자들 간의 거리를 좁혀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필요성과 양성평등의 당위성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우수사례 3>
비혼현상을 젠더 문제의 하나로 보고, 비혼으로서의 삶의 모델을 탐색하다!

- ◎ 사업명 : 비혼 세대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 비혼PT 나이트
- 단체명 : 언니네트워크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1년
- 사업예산 : 13,000,000원 |
- 사업목적 : ①비혼 현상이 경제구조, 가부장적 문화, 세대 재생산의 문제 등과 연관되어 나타난 ‘비혼 세대’현상임을 주장하고 그 등장의 의미와 실상을 면밀히 고찰한다. ②비혼으로서의 삶의 모델을 탐색하고 공동의 실험, 실천 지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든다. ③지속가능한 비혼의 삶과 대안적인 사회모델 및 관계창출에 기여할 것을 전망한다.
- 사업내용 : ①열린강의 : 비혼 제너레이션을 말한다 ②스피커 역량강화 워크숍 : 비혼 워크숍 ③비혼 PT 나이트: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삶의 모델들을 PT발표를 통해서 공유
- 사업성과 : ①열린 강의를 통해서 ‘비혼 세대’라는 집단과 새로운 개념에 관한 충분한 담론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문화, 제도, 역사 분석을 통해 비혼 현상을 젠더 문제의 하나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②비혼 워크숍에서는 사업에 대한 발표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발표 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비혼 PT 나이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③비혼 PT 나이트를 통해서 14팀의 각기 다른 발표를 통해 다양한 주체와 세대(청소년, 청년, 노년), 역사(독신자모임, 제주 신화), 권리(가족구성원), 가족 및 돌봄관계, 공동체(비혼공동체, 의료생협, 반려동물) 등 풍부한 이야기들이 참가자들의 공감

을 크게 얻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가족구조와 결혼제도, 비혼으로서의 생애전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우수사례 4>

영화를 활용한 성평등교재를 개발하여 교사와 학생이 성평등 문화를 알리는 주체로 나서게 하다!
.....

- ◎ 사업명 : 영상자료를 활용한 성평등 교재개발 및 제작
 - 단체명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1년
 - 사업예산 : 17,6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감성과 감각을 깨우는 공감의 교육방법으로서 영화를 활용한 성평등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누구나 손쉽게 교육에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가이드북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사 스스로 성평등 문화정착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업내용 : ①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분류하고 교재에 활용할 영화선정 ②2011년 상영작 중 교육에 활용할 영화 선정 후 아카이빙 작업 진행 ③주제별, 장르별로 세분화한 교재와 활용가이드북 개발 ④교재와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 ⑤전국 중·고등·대학교 상담교사와 여성단체 담당자에게 배포
 - 사업성과 : ①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카이브가 다년간 축적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②주제별 장르별로 세분화한 여성영화 가이드북과 아카이브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여성영화를 중·고등·대학교 상담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개별적 학문분야(여성학, 영화학, 교육학)와 여성영화 아카이브로 이루어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적 학제적 교육틀을 확보하였다 ④교재와 카탈로그 온라인버전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교재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우수사례 5>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본 낙태이슈를 확산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 사업명 : [2011새롭게 쓰는 낙태이야기]-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 단체명 : 한국여성민우회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1년
- 사업예산 : 17,000,000원
- 사업목적 : ❶낙태범죄화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 현실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낙태를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려낸다. ❷상담창구 개설과 사례조사를 통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여성의 낙태 경험과정을 자료화하여 배포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한다. ❸사례집의 온/오프라인 배포를 통해 재생산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시민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유도한다. ❹사회심리극과 집담회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낙태를 드러내고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는 장(場)을 마련한다.
- 사업내용 : ❶기초조사 및 기획회의 ❷상담창구 개설 ❸ 사례조사 ❹사례집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❺사회심리극(연극) 및 UCC제작 ❻집담회
- 사업성과 : ❶종교계나 정부의 주도로만 제기되었던 낙태 논의를 여성 경험의 축으로 옮김으로서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낙태 이슈를 확산하고,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❷다양한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인 현실로 맞닿아 있는 낙태를 대중적인 언어와 활동으로 공론화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일상 속 인식과 경험 영역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끌어냈다. ❸사회심리극과 UCC제작, 사례집 온/오프라인 배포로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형성해 일방적인 전달의 방식이 아닌 언어와 경험이 생동하는 역동과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 재생산권에 대한 감

수성을 확장했다. ④ 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사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장기적인 활동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법개정, 정책 수립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됐다.

.....
<우수사례 6>
2030 세대가 주축이 되는 여성주의 정치운동을 널리 확산시키다!

- ◎ 사업명 : [정치격동기 2012] 직접행동 여성시민! 젠더감수성 충전 프로젝트
 - 단체명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2년
 - 사업예산 : 15,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사회의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젊은 세대 여성들 중심으로 ‘여성정치의제’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관심을 젠더적 관점으로 확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정치를 실천하는 주체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정치적 관심을 오프라인으로 유인하며, 소그룹 활동을 통해 여성정치 주체로 훈련되고 총선에서 직접 참여를 경험하여 젠더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 사업내용 : ①사업기획 점검 및 준비(내부기획회의/간담회/사업홍보 및 모집) ②소소한 정치파티(여성정치 토크파티/시네마 토크쇼) ③2012총선 언니행동 소그룹활동(녹색여성모임/대학내활동2그룹/여성후보 캠프체험단/거리 캠페인팀)
 - 사업성과 : ①여성정치의제의 소통기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 젠더관점과 여성으로서의 정치참여 의식이 고양될 수 있었다. ②소그룹활동 경험을 통해 각자의 정치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정치참여의 긍정적 경험과 만족감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한 소그룹활동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젠더’적 관점이 형성·강화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여성세대의 여성주의 정치운동/유권자운동 참여로 지속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할 수 있었다. ③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여성적 연대경험을 형성하고,

여성단체와 연계를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점도 중요한 성과이며, 앞으로 여성연의 운동동력을 확장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
<우수사례 7>

페미니즘을 구체적이고 쉬운 경험 담론으로 생산하여 확산시키다!
.....

- ◎ 사업명 : ‘나의 페미니즘’을 소통하라
 - 단체명 : 일다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3년
 - 사업예산 : 9,000,000원
 - 사업목적 :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의 페미니즘’을 기록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현재, 우리의 페미니즘’을 구성하고 여성주의 대안 담론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둔다.
 - 사업내용 : ①지역, 연령, 직업, 환경이 다른 오늘날을 살아가는 50인의 여성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나의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여성주의 대안 담론을 구성하였다. ②지역을 발판으로 풀뿌리 매체를 만들거나 글을 쓰며 다양한 이슈를 알려내고 있는 각지의 여성들을 발굴하여 ‘여성주의와 기록을 통한 소통’ 공개 간담회를 갖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사업성과 : ①인터넷 신문 <일다>를 통해 32편의 기록이 기사로 연재되었으며, 어렵고 학술적인 이론으로 인식되는 페미니즘을 구체적이고 쉬운 한국의 현재 경험으로서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켰으며, 여성주의 운동의 의미를 재평가하였다. ②전국 각 지역에서 여성주의 관점을 담아 기록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과 그 실천들을 발굴하여, 공개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소중한 경험과 결실을 공유하며 네트워킹하고, 기록 활동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였다.

.....
<우수사례 8>

외모지상주의를 여성건강권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 정책을 제안하다!
.....

◎ 사업명 : 2013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

- 단체명 : 한국여성민우회
- 단체소재지 : 서울
- 지원연도 : 2013년
- 사업예산 : 11,000,000원
- 사업목적 : 인터뷰·사진집 제작 및 배포, 캠페인 진행과 북 콘서트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사회적 인식,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성형, 다이어트 등 계속되는 몸관리로 인한 여성건강권의 침해 현실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왜곡된 몸 이미지 재구성의 필요를 알려낸다. 또한 ‘몸 다양성’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 정책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 사업내용 : ①기획조사 및 기획회의 ②기획단 교육 및 인터뷰 ③인터뷰·사진집 제작 및 배포 ④대중캠페인 및 북콘서트
- 사업성과 : ①기획회의, 기획단 역량강화 교육기획을 통해 여성건강연구자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기자, 사진작가, 지역활동가 등과의 교류로 여성의 몸, 왜곡된 이미지 재구성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 이후 사업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기획단, 인터뷰이)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 ②외모관리 압박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 획일화된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획단 모집, 교육, 인터뷰 진행 전 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기획단 신청 조기 마감, 기획단 교육 외부참여자 50여명, 인터뷰 진행 10→22명으로 확대)로 이어짐. 또한 인터뷰 사진집 기획, 컨셉사진 촬영 등에 기획단, 인터뷰이 등이 실천의 제안자가 될 수 있었으며 향후 여성주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인터뷰 사진집이 출판되면서 일간지 1면에 소개되는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를 피했다. 더불어 성형, 다이어트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관련 정책(성형수술 부작용사례조사, 성형광고 규제 등)제안을 이루어냈다.

5. 여성운동의 미래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과제

가. 성평등사회를 향한 여성운동의 과제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2015년 7월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정부 여성정책의 틀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 될 것이다. ‘양성평등’이라는 이분법적 성 규범을 아직 전제하고 있지만, 이 법은 기존의 한국의 여성정책을 여성특화정책에서 성평등정책으로 바꾸어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의 목적이자 궁극적 지향으로서 ‘성평등’의 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의 호명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가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해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그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은 여성운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운동, 즉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세력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여성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성운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 왔고, 대중적 기반도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여성들에게 제공해 왔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선 여성운동의 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풀뿌리운동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여성주체(feminine subjects)에서 여성주의적 주체(feminist subjects)로 전환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여성이 맡은 주부이자 어머니,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그로부터 형성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여성들 자신이 당면한 가부장적 관습과 성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의식과 실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주체로서의 역량은 지속적인 토론과 고민, 실천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성취적 능력(achievements)이며 이것은 여성들이 평생 동안 학습해 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Hartsock, 1983).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궁극적으로 여성주의적 주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남성과 함께 성평등을 실천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과 산업의 다양한 운동

에 참여하고, 그들이 주부이자 어머니, 시민, 노동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에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조건을 재해석하고 자기 목소리를 지닌 정치적 주체(speaking subjects)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결국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봉착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세력화를 확대해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한국의 여성운동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다.

1) 여성대중의 조직화

여성운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의 활동을 상근자 또는 활동가 중심에서 회원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또 단체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여성운동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실천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2) 지역여성운동의 강화

지역여성단체가 중앙 단체의 과제를 받아 그것에만 몰입하는 하향식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또 지역여성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당파성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차원의 이슈와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여성운동단체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이 자기성찰과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감으로써 지역사회 여성들의 세력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가야 한다.

3) 생활정치와 풀뿌리여성운동의 여성주의 심화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운동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정치와 연계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또 풀뿌리 여성들의 실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통해 여성들이 가부장적 사회와 성차별에 도전하려는 문제의식

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점은 늘 환기되어야 한다. 계급과 계층, 지역, 가족관계, 인종(국적)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고 지속되지만, 성별 불평등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여성들의 존재조건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실천을 통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불평등의 요인들 속에서 성별 불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제약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젠더 감수성을 훈련해 나가야 한다. 성차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천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여성주의적 성찰성과 지향을 심화해 가야 한다.

4) 여성운동의 리더십 키우기

허라금(2005)은 여성의 리더십을 세 차원으로 구분했다. 첫째, 여성리더십(female leadership)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생물학적 여성이 지닌 리더십이다. 생물학적 출산자이자 양육자, 돌봄노동 수행자로서 여성이 갖게 되는 능력이 그것이다. 둘째, 여성적 리더십(feminine leadership)은 여성/남성의 젠더체계에서 여성의 특성이 포함된 리더십으로서 돌봄과 배려의 윤리를 내면화한 역량이다. 셋째, 여성주의적 리더십(feminist leadership)은 정치적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추구되는 해방적 가치에 기초하며, 약자의 입장에서 억압적인 현실의 권력질서에 저항하고 권력관계의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여성에게 주어진 가부장적 권력체계에 저항하며 평등한 젠더관계를 추구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리더십과 여성적 리더십에서 여성주의적 리더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먼저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을 강화하고 그들이 여성주의적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킹과 협력, 연대의 경험을 통해 여성주의적 리더십을 개인의 능력에서 조직의 역량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5)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 능력 키우기

박기남(2012)은 개인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성단체 회원들도 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으로서 여성의 자기성

찰과 자기기획과정에 대한 여성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여성단체 내 그리고 여성단체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험을 축적해 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위치와 권리를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지도자나 소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지 않을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를 훈련해 가야 한다. 세넷(Sennett)은 사회적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춤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줄여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고 보았다(세넷, 2013). 동일성의 원리에서 벗어나 차이의 존중에서 시작하는 타자 인정의 정치를 여성운동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6) 젠더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

「양성평등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성운동의 지형 —국가, 시민사회, 여성대중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새 법체계 아래서 젠더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구인지, 남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운동의 제도화로 인한 사회복지기구화와 보수주의 정권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적 배제, 여성운동의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 여성운동은 젠더거버넌스의 위기를 맞고 있다. 자유주의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다시 여성을 인력 활용과 저출산 대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정치권력의 성향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젠더거버넌스를 지속해 갈 수 있는 안정화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모색해 가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성주의에 대한 역풍(backlash)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7) 성평등 담론의 확산과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모색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한국사회의 여성정책이 한 수준 더 발전하려면, ‘성평등’이 무엇인지, 성평등의 의미를 사회적 조건 속에서 탐색해 가야 한다.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평등의 의미는 각 사회적 시대적 맥

락 속에서 재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평등, 특히 실질적 성평등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성평등 사회의 요건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토론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대해 감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생활정치와 생명정치, 돌봄사회의 지향 등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을 심화시켜가면서 이것이 한국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담론화시켜 가야 한다.

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과제

1) 사업대상과 사업방향에서의 개선방안

가) ‘여성주의’, ‘성평등’을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우선지원 필요

여성단체의 범위는 시대변화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면접조사내용에 의하면, 여성단체와 여성운동단체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며 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방향을 개선하면서 고려해야 내용이라고 본다. 더욱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크게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여성운동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성이 모인 조직이라고 해도 그들의 활동이 성별분업을 강화하거나 남성중심사회가 지속되도록 하는 방향이라면 여성운동단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시민단체 중에는 ‘여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지만 ‘민주적인 사회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면서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인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시민단체들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단체들도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보수정부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MB정부에서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것을 경험했고 진보적인 정부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정부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유롭게 젠더이슈를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사업에 매이다 보니,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젠더 이슈를 발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성단체들 중에는 정부 프로젝트를 일체 받지 않는 단체들이 생겨났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늘어났다. 이 단체들은 아름다운재단, 한국여성재단 등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사업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민간재단이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정부 프로젝트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민간재단의 프로젝트가 정부보다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정부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계처리 등을 이유로 변경해 주지 않으려고 하며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재단은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변화나 사업대상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때, 그 사유를 설명하면 재단의 담당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변경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재단은 시민사회단체의 일부로 들어와 있으면서 재단이 사업비를 제공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 공무원이 여성단체들을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고 경직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은 이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여성주의’ 또는 ‘성평등’을 표방하는 신생단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서울시와 광주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소모임, 작은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거나 성평등을 목표로 사업을 하려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사업방향은 ‘여성주의’ 또는 ‘성평등’을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단체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본래의 목적을 실천하고 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여성의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확장시킴으로써 여성운동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풀뿌리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여성주의적인 사업기획을 지원

여성운동은 대중성을 지향하면서 성장할 때,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여성단체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풀뿌리 여성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이면서 여성주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단체라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사업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에는 소모임이 많아지고 그 모임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회원과 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움직이는 소모임과 단체들의 활동이 여성에게 주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면서 여성주의, 성평등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단체가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재단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방향을 통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여성주의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성평등의 주류화를 실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프로젝트의 수행이 단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이 단체의 조직적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정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조직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그 사업을 담당했던 활동가가 단독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단체의 역량으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접조사 내용에 의하면,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사업담당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단체의 다른 회원이나 활동가들에게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체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공동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들은 그 사업을 활동가 개인에게 맡기기 보다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팀(가칭)’이 해당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계획서 양식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라) 기획공모사업에서 일상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주제 제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자유공모사업은 단체 고유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여성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기획공모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기획하여 사업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운동의 강화 등을 기획공모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의하면, 기획공모사업에서는 여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 사업대상에 젊은 층,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세대 간에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여성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성평등 관점에서 미디어 읽기, 페미니즘 학교, 남성의 육아, 외모중심주의와 여성혐오 비판 등에 관한 사업은 한국여성재단이 크게 관심을 들만한 사업으로, 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기획공모사업에서 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주제들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도 여성운동에 참여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활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10대,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갖는 관심사를 주제로 설정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경우, 이것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과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사업과의 차별성

성평등사회조성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중의 일부는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사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면접조사 내용에 의하면,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두 사업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정부사업과는 차별화된 방향으

로 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사업과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한국여성재단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여성주의’보다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한국여성재단은 지원사업의 범위에 정책연구와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제외대상사업으로 캠페인과 세미나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여성단체들이 정부에 제출할 서류 중에는 법인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어 등록된 단체를 우선해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여성재단은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넷째, 여성단체는 파트너단체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청의 경우 공모분야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비를 정하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액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사업>

경상북도의 경우 매년 여성발전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초에 경북 도청이 시행한 이 사업은 1천만원 범위에서 단체들이 지원한 사업 중 일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취업지원과 여성능력개발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을 6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여성취업지원사업 둘째,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셋째,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사업, 넷째, 여성단체 활동지원사업, 다섯째, 양성평등의식 확산 교육사업 여섯째,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흥미로운 것은 제외대상사업으로 여기에는 캠페인과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으며 책자 발간위주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중 제외대상사업>

- 일회성이거나 전시행사 성격의 사업(캠페인, 세미나 등)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또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 책자 발간위주의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대 책정된 사업
- 강사비로 사업비가 과대 책정된 사업

또한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천만 이내로 되어 있고 신청자격은 경상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 또는 공익단체,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북권 연구기관, 기차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등으로 되어 있다.

사업의 선정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둘째,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효과성, 셋째,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자부담 능력이다. 아울러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부진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목적달성도 및 효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다. 이때 일반 예산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등에서 추진(지원)하고 있는 동일 성격의 사업은 제외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사업시 유의사항으로 자부담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지원규모는 공모분야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비를 정하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액으로 확보하도록 하며 이를 필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의 설립목적이 여성단체의 지원을 통한 여성운동의 성장이라고 볼 때,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사업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이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성주의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여성재단이 여성주의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한 소규모 단체, 신생단체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바) 지역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DB구축

정부나 민간재단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면, 수도권이나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들이 성장하고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를 일정비율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수도권에 비해 재정적 열악함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중소도시, 특히 농촌과 산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있는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부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어서 한국여성재단이 관련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문화예술부문에서 기획을 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전국순회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성평등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

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여성단체의 참여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여성재단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지역에 적극 홍보해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원단체를 선정할 때, 신청한 단체들의 재정상태를 심사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양식을 단체선정을 위한 양식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는 수도권에 있거나 중앙단위의 여성단체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받기 어려운 지역단체와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받고 있는 단체들을 구분해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성단체들을 지원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당해 연도 단체운영예산 파악을 위한 양식(안)

계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또한 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관련 전문가가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운영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지역 여성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여성단체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자문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단체들이 한국여성재단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100인 기부 릴레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에 관한 DB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여성단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관한 인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의 여성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 단기사업과 여성단체들 간의 연대사업 발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들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사업을 보면 사업의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82.8%로 절대적으로 많다.

이는 파트너 단체들이 특정 이슈에 즉각 대응하는 사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단기적으로 여성단체들이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성차별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하면서 젠더 이슈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하는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딸들에게 희망만들기(가칭)’사업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단기 프로젝트(6개월 미만)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여성단체들이 ‘연대사업’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했던 파트너단체들의 활동가들은 회계처리업무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기사업의 회계처리방식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자유공모사업이나 기획공모사업과 달리 크게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6개월 미만의 단기사업의 경우 선정된 여성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처리는 한국여성재단이 직접 수행할 경우, 경험이 없어 회계처리 부담을 크게 느끼는 여성단체 활동가, 회계처리 자체를 번거롭다고 여기는 소모임 활동을 하는 여성 활동가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로 아름다운 재단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단체가 변화를 지향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장 3년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아름다운 재단의 시민단체 지원사업 중 일부>

[공익활동 지원]

2014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_신규
 지원내용연간 최대 3천만원, 최장 3년간의 사업비
 지원대상공익적 시민사회단체
 지원기금1%기금

<세부내용>

1. 사업명 : 2014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해당사업은 1%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신생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만드는 개인이나 그룹 1단위

① 내용 : 시민참여/소통에 기반 한 사업으로 다음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단위

-공정한 국제연대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

② 주제 : 지역적, 주제별로 자생적으로 나타난 시민기반의 개인이나 그룹

-이미 만들어진 단체는 신청불가

-기존단체가 진행하는 인큐베이팅사업은 신청불가(센터나 지부, 단체의 일부분리독립 등)

③ 주제 : 본 사업의 지원에 적합한 사회적, 공익적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

④ 활동 :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체설립과 활동계획을 내용으로 할 것

⑤ 공간 : 해당 인큐베이팅에 적합한 물리적, 인적공간에서 진행될 것(온라인 공간 포함)

⑥ 조직 : 해당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내외적 인적주체와 자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지원내용

3년간 최대 2억원의 인큐베이팅 비용 지원

이에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는 신생 여성단체의 지원이나 신규사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 확산’ 또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는 신생 단체이거나 또는 정부 보조금 40% 미만인 시민단체가 성평등사업에 신청할 경우 매년 2개 단체씩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중 ‘딸들에게 희망주는 사업(가칭)’-신생단체 지원 사업>

-지원내용 : 500만원 범위에서 인건비 지원 또는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여성단체 또는 성평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지역단체 우선지원)

아) 청소년 대상, 세대 간 소통확대 사업 확산

앞서 살펴본 대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 청소년 대상 사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미래의 여성운동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10-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로 한 여성단체의 사업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운동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선정과정에서는 10대, 20대가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적극 참여해서(사업 기획단 또는 관련 회의에 10대 또는 20대가 참여)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10대의 이슈를 다루면서 10대와 20대,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세대 간에 소통하면서 수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미래의 여성운동을 깊어지고 갈 청소년, 젊은 층을 키우면서 지난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의 여성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교류하도록 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여성운동 성장의 핵심요소가 되는 회원재생산과 여성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계획과정에서의 개선방안

가)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의 개선

2013년에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유공모사업은 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지원을 통한 여성운동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기획공모사업은 여성재단이 기획한 주제에 맞추어서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표 18〉 2013년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의 주제

구분	주제
자유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문화정책 -여성운동활성화 -주변부 여성자립지원 -여성폭력예방, 여성인권증진
기획공모사업	<p><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성 평등한 정책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 분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각 지역별 성평등 정책 특성현황 분석 및 평가 ※ 해당분야 기재 _____ (ex :안전, 돌봄, 일자리 등) <input type="checkbox"/> 성 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 평등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의 개입방안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과 향후 정책 수립활동 방향 수립 등

그러나,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의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고 차별성이 보이지 않아 앞서 개선방안을 제기한 대로 계획과정에서 기획공모사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과 같이 기획공모사업에서는 자유공모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차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19〉 연도별 기획공모사업(2011-2013)

연도	분야	단체명	사업명
2011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모색을 위한 지원사업	경기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가!”
		경기자주여성연대	“눈빛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우리들의 여로(女路)”
		광주여성회	교육과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의 동네 프로젝트
	창의적인 여성운동 모색 및 차세대여성활동가 발굴 지원사업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	또 하나의 우리집 “교육문화센터” -여성들이 만들어나가는 교육,문화공동체 세상
서울지역 총여학생회 모임 및 리얼퍼플		20대, 불량소녀가 되자! - 새내기를 위한 여성 리더십 캠프, 여름 페미니즘 캠프	
2012	지역기반의 새로운 조직운동 지원사업	풀뿌리 여성센터 바람	“마을여성리더교육 : 풀뿌리 여성운동이 마을을 바꾼다.”
		경주여성노동자회	품앗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빈곤여성 자립 강화와 지역 호혜경제 활성화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 모색을 위한 지원사업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찾기 프로젝트
2013	여성친화정책 모니터링	인천 YWCA	여성친화도시정책모니터링(안전한 도시생활환경부문)
		(사) 여성환경연대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과 정책제안서 발간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자유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으로 구분 하되 기획공모사업의 대상을 ‘설립한지 3년 이내의 신생 여성단체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여성주의나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로 제한하거나 단기 사업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표 20〉연구진이 제안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개선안

구분	주제
자유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문화정책 -여성운동활성화 -주변부 여성자립지원 -여성폭력예방, 여성인권증진
기획공모사업	<p><1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사업명</u> : 신생 여성단체 인큐베이팅사업 -<u>사업목적</u> :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시민단체들이 성평등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운동 활성화 -<u>사업대상</u> : 신생 여성단체 또는 단체 설립목적에 여성주의 또는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는 신생 시민단체 -<u>사업방법</u> : 사업계획서를 한국여성재단에 제출, 회계처리는 한국여성재단이 직접 수행 <p><2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사업명</u> : 여성주의 또는 성평등 담론 지원사업 -<u>사업목적</u> :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주의 담론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여성운동 활성화 -<u>사업대상</u> :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및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u>사업방법</u> : 사업계획서를 한국여성재단에 제출, 회계처리는 한국여성재단이 직접 수행 -타 여성단체와 연대사업을 할 경우 선정시 가점 부여 <p><영역구분(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세대별 여성 지원 사업 : 10대 청소년 지원, 2030 여성 프로젝트 ②남성 참여 활성화 사업 : ③페미니즘 글쓰기 학교 : 할머니와 어머니 생애사 쓰기, 미디어 읽기, 모성인문학 등 ④기타 :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 등

나) 사업계획서 양식의 변경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활동가 개인 뿐 아니라 단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단체활동가들이 해당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단체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사업담당자 뿐 아니라 사업을 담당할 부서 또는 팀을 적고 팀원들을 기재하도록 하고 팀원 중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1년 미만인 활동가 또는 회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분야는 성평등 문화 분야, 인권·복지 분야, 노동/경제 분야, 지역공동체 분야, Global 분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단체와의 교류, 연대를 통해서 지역단위에서 여성운동의 결집력을 키움으로써 젠더이슈에 관한 현안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을 홍보할 때, 연대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서류심사 배점표에서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생단체들이 사업 선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행 배점표에서 ‘신청 단체 평가(20점)’의 비중을 10점으로 낮추고 연대사업 관련해서 10점의 비중을 두어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담당부서 또는 팀의 구성 유무와 구성원이 단체의 회원이나 단체의 신규 활동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배점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 한국여성재단 자유공모사업 서류심사 배점표 변경안

심사영역	심사 참고사항	점수
가. 신청 단체 평가 (10)	사업수행을 위한 논의구조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를 갖추었는가?	
	신청 단체는 재단 자유공모사업 취지에 적합한 미션을 갖고 있는가?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업 경험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지원신청을 한 사업의 수행 역량을 입증할 만한 활동이 있는가?	
	최근 2년간 진행한 사업들 중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는가?	
나. 네트워킹 평가 (10)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여성단체 또는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교류(교육, 홍보 등)할 계획이 있는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타 여성단체 또는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연대활동을 벌일 계획이 있는가?	
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20)	신청한 사업 내용은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목적·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시의성이 높은가?	
	사업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사업시행시 단체의 조직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라.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타당성 (20)	유사한 목표의 다른 사업들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다른 단체 및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할만한 참신성 있는 사업인가?	
	사업 시행 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은 제시된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일정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심사영역	심사 참고사항	점수
마. 신청 사업수행능력 (20)	사업수행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사무처 적격평가 확인
	사업수행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에는 단체의 회원 또는 신규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수행 담당자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투입과 지역사회의 자원동원 및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는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이 합리적인가?	
	항목별 예산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마. 종합평가(20)	사업수행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가?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 긴요한 사업이며 성과가 기대되는가?	
계		
비고		

3) 수행과정에서의 개선방안

가) 수행절차의 개선과 회계업무 간소화

한국여성재단은 사업에 참여한 파트너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2차례 진행하고 있으며, 이때 배분위원들이 슈퍼바이징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13-14개 단체가 선정되는데 워크숍에서는 2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로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다. 1월 중에 개최되는 워크숍에서는 사업담당자들에게 한국여성재단이 사업 진행일정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회계업무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다.

면접내용에 의하면, 파트너단체 워크숍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7-8월에 개최하는 중간 워크숍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워크숍이 도움이 된다는 단체에서는 이것이 여성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타 여성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한다. 특히 신규 활동가들에게는 오리엔테이션과 회계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간워크숍의 경우 단체가 수행

하는 사업을 상당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받게 되는 배분위원들의 자문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간워크숍을 수행절차에서 삭제하거나 이것을 지속시킬 경우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요로 하는 홍보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중간워크숍에 참석하여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접조사 내용에 의하면, 한국여성재단의 회계처리가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재단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사업과 비교해서 복잡한 편이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회계처리는 지원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의 경우 절차를 소폭 간소화시키고 500만원 미만이 되는 사업은 대폭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수행절차(2013년 사업 기준)

단 계	내 용	일정(시기)	기타
사업계획	○ 차년도 공모기획	7-9월	
	○ 배분위원회에서 공모안 승인	9월	
	○ 공모	10월-11월 (4-5주간)	
	○ 심사 : - 사무처적격평가, 서류심사, 면접심사	11-12월	배분위원회에서 심사 위원 구성 및 심사
	○ 선정결과 발표	12월 30일	이사회 승인 후 발표
사업수행	○ 파트너 단체 워크숍 - 선정단체 사업계획 공유	차년도 1월	
	○ 중간워크숍 개최	차년도 6-9월	
	○ 최종보고서 접수 및 검토	차년도 11-12월	
사업평가	○ 단체별 사업평가 진행	차년도 2-3월	
	○ 우수파트너단체 선정	3월 중	우수파트너단체의 경 우 공모시 가점 부여

나) 사업담당자 대상의 회계·홍보 등 맞춤형 교육 제공

파트너 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여성주의와 여성정책, 여성운동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또한 단체 상근자로 활동한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회계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또한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여성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휴대폰으로 홍보하는 방법, 온라인상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관련 교육생 모집, 행사 홍보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은 편이다. 한국여성재단이 파트너 단체들의 교육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회계교육 또는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활동가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하면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과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각종 행사를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진행하는 토론회, 워크숍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각종 행사를 월별로 보여주어 단체활동가 및 회원 중에서 관심 있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단체들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타 여성단체들과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단체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홍보를 위한 공통양식 마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언니네트워크가 했던 ‘비혼세대 네트워크와 역량강화프로젝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 일간지에서는 ‘페너지(Fenergy)로 언니들에게 힘을 주는 언니네트’(경향신문, 2011년 4월 4일자)로 크게 보도하였다. 2013년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결과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 주간지에서는 ‘아름다운데 목매는 거대한 감옥’(한겨레 21, 2013.12.16.)이라는 주제로 이 단체가 제시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40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여성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모차별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전했다.

이러한 언론홍보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려서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부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단체들이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통의 홍보양식을 개발하고 그 안에 한국여성재단의 지원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4) 평가과정에서의 개선방안

가) 우수파트너단체 선정 평가기준의 개선

우수파트너단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타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거나 네트워킹을 하였는지가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의 연대활동이나 네트워킹 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정부가 제공한 지원사업과 달리 민간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주의와 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선정하거나 평가할 때, 개별단체의 운영예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려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교육비, 워크숍 참가비 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평가기준에서는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사업수익을 적절히 활용했는지 또는 후속작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평가 사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표 24〉자유공모사업 평가 기준 변경안

심사영역	심사 참고사항
가. 사업추진의 적절성 (10점)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가 계획에서 제시한 대상자와 일치하는가?
	사업장소와 사업수행 시설 및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사업 추진계획 대비 사업 추진 세부내용이 단계별 일정대로 추진되었는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추진하였는가?
나. 사업 목표의 달성여부	외부자원(전문가, 지역 관련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사업 추진계획 대비 세부내용별로 사업수행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사업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도구가 적절한가?

심사영역	심사 참고사항	
(10점)	사업 달성 목표의 수치와 질적 수준이 높은가?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사업목표 달성여부가 잘 드러나 있는가?	
	향후 본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가?	
다. 사업의 영향력 및 기여도 (10점)	사업에 참여한 사업 대상들의 변화가 유발되었는가?	
	직접 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개인적 상황이나 문제해결에 기여한 바가 높은가? (삭제 제안)	
	사업수행시 적극적으로 타 여성단체와 연대활동하거나 네트워킹을 하였는가?	
	해당사업 취지(성평등사회 조성, 여성단체가 만드는 성평등한 정책만들기)에 진행한 사업이 적절한가?	
	본 사업이 조직의 역량강화를 이끌어냈는가?	
라.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절차 준수 (10점)	모든 예산집행이 계획서대로 집행되었는가?	
	2013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수행 회계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 사무처 의견서 참조
	사업수행시 발생한 수익을 적절히 활용했거나 후속작업에 활용할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마. 종합평가 (10점)	재단 사업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는가? (사무처 의견서 참고)	
	한국여성재단 사업(홍보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사무처의견서 참조)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나)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과 우수 사업의 전국적 확산

각 사업이 단체의 조직 강화와 지역사회의 성평등 실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우수 사업의 경우 전국적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적과 동기, 조직과 지역사회에의 기대효과, 현실 변화의 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의 활동가들은 기존의 성평등사회조성 사업 중 평가가 좋았던 사업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고 그 사업의 세부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 따라서 매년 선정된 우수파트너단체의 사업들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성단체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다) 파트너단체들의 참여적 평가와 성과발표회 개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단체들은 이 사업의 초기와 중반에 한국여성재단이 마련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타 여성단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알게 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지만 사업의 최종 결과를 알지 못한다. 이에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자축파티를 개최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업의 결과를 참석자들에게 간략하게 알리고 우수단체에게 상을 수여한다면, 이 사업의 성과를 여성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하는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평가하도록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2개 단체에게 상품권을 수여한다면 여성활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란(2013),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풀뿌리 여성운동 조직 경험 분석”,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강이수(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경제와 사회』, 통권 제 100호.
- 강인순(2007), “마산 창원 지역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학』, 제 23권 4호.
- 고정갑희(2007), “여성주의 이론생산과 여성운동, 사회운동: 가부장체제의 사막에서 이론의 오아시스를 찾아나가다”, 『여/성이론』, 통권 제 17호, 10-31쪽.
- 권수현(2011),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 50권 1호.
- 김경례(2007), “한국 온라인 여성운동을 통해 본 사이버페미니즘의 정치성”, 『젠더와사회』, 제 6권 1호.
- 김경희(2005), “국가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제도화”, 『2005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 _____ (2007),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학연구』, 제 15권 1호.
- _____ (2011),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과 변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제 25권 0호.
- 이재경·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제 28권 3호.
- 김영남(2012), “풀뿌리여성운동을 통해 본 여성주의 시민성의 확장에 관한 연구: 대전여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제 48권 2호.
- 김영희(2000),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 28권 2호.
- 김원정(2008), “성평등한 노조로 가는 공정, 어떻게 할까”, 『노동사회』, 제 130권 0호.
- 마경희(2007),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제 23권 1호.

- 문은미(2005) “성노동자운동, 낫설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 『진보평론』, 제 26호.
- _____ (2008), “여성운동과 젠더정치학의 미래”, 『여/성이론』, 통권 제 19호.
- 박기남(2012),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페미니즘연구』, 제 12권 1호.
- 박신규·정은정(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 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 20권 1호.
- 박인혜(2011),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제 변화에 대한 연구 :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2007), “지역생협에서 주부들의 풀뿌리운동과 대안가치”, 『진보평론』, 제 33호.
-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0권 2호.
- _____ (2005) “섹슈얼리티, 차이의 정치학 그리고 여성운동 : 섹슈얼리티가 말해지는 방식을 성찰하며”, 『여성과사회』, 제 16호.
- 서두원(2012), “젠더 제도화의 결과와 한국 여성운동의 동학”, 『아세아연구』, 통권 제 147호.
- 세넷, 리처드(2013), 『투게더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현암사.
- 신상숙(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페미니즘연구』, 제 11권 2호, 153-197쪽.
- 신희선(2005), “디지털 시대와 사이버 페미니즘: 한국여성단체의 온라인 여성운동과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 44집 1호.
- 안진(2013), “광주전남지역 여성운동의 연대를 위한 모색”, 『여성과 역사』, 제 18집.
- 엄혜진(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100인위’ 운동의 수용과 현재적 착중”, 『페미니즘연구』, 제 9권 1호.
- 오김숙이(2010), “한국 여성운동과 차이문제: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통권 제 22호.
- 오은진(2014), “여성운동과 여성정책: 갈등과 합의”, 『경남발전』, 제 131호.
- 오장미경(2002), “생활정치와 페미니즘 : 생활자치운동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 제 52호.
- _____ (2004),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 내부의 차이”, 『진보평론』, 제 20호.
- _____ (2005),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여성과 사회』, 제 16호.

- 윤정숙(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창작과 비평』, 통권 제 125호.
- 이명호(2011),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1990년9대미국과2000년2대한국 페미니즘담론비교연구”, 『여성문학연구』, 통권 제 26호.
- 이송희(2009), “부산 지역 여성운동의 회고와 전망: 진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제 20집.
- 이숙진(2012),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복지동향』, 제 170호.
- 이정수(2013), “풀뿌리 단체의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활동가의 욕구조사를 중심으로:여성활동가의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혜숙(2012), “지역여성운동의 조직과 세력화의 전망”, 『한국여성학』, 제 28권 4호.
- _____(2013), “지구화 지방화 시대 지역여성운동과 여성연대의 전망 : 경남여성단체 연합의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 18집.
- 임국희(2011) “여성주의 정치 패러다임 전환의 이론적 모색: 차이와 연대를 포괄하는 윤리의 정치로”, 『페미니즘연구』, 제 11권 2호.
- 임옥희(2010), 『채식주의자 뱀파이어-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도서출판 여이연.
- 전희경(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 『페미니즘연구』, 제 14권 1호.
- 정희진(2006), “여성운동의 중심에 물음표를 매긴다-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와의 대화”, 『창작과 비평』, 통권 제 133호.
- 조순경(2004),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물음들”, 『17대 총선과 여성연합의 대응에 대한 평가토론회 토론문』.
- 조이여울(2006),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진보평론』, 제 28호.
- 조현옥(2008), “한국의 여성정책결정에 여성운동이 미친 영향”,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여성정치패널』.
- 조형(1984), “한국여성운동의 비판적 고찰”, 『이화』, 제 38호.
- _____(1996), “법적 양성평등과 성의 정치: 여성관련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제 12권 1호.
- 풀뿌리여성센터 바람(2013), 『스스로 배우는 풀뿌리 여성주의: 풀뿌리 여성조직 사례 연구 및활동가 교류 심포지엄 사후 자료집』
- 하승우(2009), “한국의 시민운동과 생활정치의 발전과정”, 『시민사회와NGO』, 제 7권 2호.

- _____ (2011), “생활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성”, 『경제와 사회』, 통권 제 90호.
- 한국여성민우회 <생강여성모임> 자료(2001).
- 한국여성재단(2011),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1 Final Report」
- _____ (2012),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2 Final Report」
- _____ (2013),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결과보고서 2013 Final Report」
- _____, 각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보고서」
- 허라금(2005), ““여성주의 리더십”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여성철학』, 제 5권.
- 허성우(2006),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제 22권 3호.
- 홍찬숙(1999), “차이를 안고 연대로: 문제제기”, 『여성과사회』, 제 10호.
- 황정미(2006), “한국 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차이의 소통’을 위한 전망”, 『안과 밖:영미문학연구』, 제 21호.
- Hartsock, Nancy(1983), "The Feminist Standpoint: Developing the Ground for a specifically Feminist Historical Materialism", Sandra Harding and Merrill B. Hintikka (eds.), *Discovering Reality*, 283 - .310.D. Reidel Publishing Company.

〈부록〉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2002-2013)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	200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갈등중재 훈련프로그램
2	2002	광주YWCA	21세기 일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3	2002	금샘사랑방문화클럽	여성지역사회교육 주부의 힘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
4	2002	녹색삶을위한 여성들의모임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지역여성의 새로운 사회적역할모델개발 프로그램
5	2002	대구여성회	비혼여성자리찾기
6	2002	대한여성건강학회	농촌지역 중심 여성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7	2002	매매추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여성주의와 인간보호
8	2002	복지세상을열어가는 시민모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성장애인 문화학교
9	200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빈곤지역 공부방 여성실무자 지역사회조직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지도력 개발프로그램
10	2002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남녀평등확산사업 · 21세기 남녀평등대학
11	2002	서울여성노동자회	38세계여성의날기념 비정규직 여성권리의식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12	2002	서울여성의전화	대상별 여성주의 성교육 사업
13	2002	어린이문화예술학교	학교로 찾아가는 남녀평등 교육극
14	2002	여성환경연대	환경분야여성국제리더십양성 【2003지구정상회담NGO포럼 및 아시아 여성환경회의】 참가지원
15	2002	인천내일어는집	가정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 원양성교육 프로그램
16	2002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의 성인식 실태조사
17	2002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지도력향상교육
18	2002	충남성폭력피해상담소	시소게임 · 지역 내 부부의 성평등 의식조사
19	200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및 여중생평화캠프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20	2002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21	200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노동운동가양성 및 리더십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2	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운동발전을 위한 지도자 수련회 - 업그레이드 여성운동 만들기
23	200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24	2002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여성, 몸, 성 워크샵
25	200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주의 성교육 워크샵
26	2002	한국여성연구소	여성문제 대중정론지 【여성과 사회】 제14호 발간
27	2002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회여성보좌진 양성교육
28	2002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성차별적문화개혁과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여성문화제
29	2002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지역사회여성NGO활동가 양성을 위한 여성리더십아카데미
30	2002	한빛여성의쉼터	제주도가정폭력·성폭력상담기관 및 쉼터종사자를 위한 명상치료워크샵
31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조인들의 성의식·성평등 의식 실태조사와 대안모색을 위한 공개세미나
32	200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인권운동 20년, 【인권백서】 발간사업
33	2003	경기여성연대	가정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
34	2003	대전여민회	실업계여고생 진로탐색 워크샵, 2003 나를 위한 세상열기
35	2003	안양여성회	평등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삶의 정치교육
36	2003	인천내일어늘어는집	가정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프로그램
37	2003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자신있는 삶을 위한 여성강좌와 문화체험 및 인적네트워크구성
38	2003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주노동자지원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39	200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리더십 개발을 위한 모의 유세대회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40	2003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소년 정치캠프, 미래의 여성정치인을 꿈꾸며
41	2003	강릉성폭력상담소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인형극 공연
42	2003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너와나, 우리몸 지키기
43	2003	마산YWCA	아빠와 딸을 위한 동화
44	2003	서울여성노동자조합	여성 아르바이트 상담전화 운영 매뉴얼 제작
45	2003	언니네트워크	여성 사이버 행동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환경 개발
46	2003	여성문화인권센터	일상생활속의 성상품화 전시회, 밀실에서광장으로
47	2003	전주여성전화	딸들을 위한 캠프
48	2003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성교육을 통한 자아성장 : 저소득층 및 시설청소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49	2003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성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캠프
50	2003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 아카데미
51	2003	대한어머니회광주연합회	여성의 정치세력화, 광주에서 열어간다
52	2003	전북여성단체연합	주민자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리더십 교육
53	2003	제주어민회	여성이 만드는 평화의 아파트
54	2003	전국여성노동조합	노동조합 여성지도력 향상교육
55	2003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전국여성운동가한마당 몸·마음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여성연대
56	200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 여성단체 정책실무자 워크샵
57	200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걷기 대회
58	200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성노예와 강제노동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 NGO포럼
59	2004	경남여성회	지방분권시대여성의 지역자치학교 “지역자치여성이 말한다”
60	2004	김해여성회	평등가족의 새로운 명절문화 만들기
61	2004	녹색삶을위한 여성들의모임	풀뿌리 여성지도자 활동 사례개발 및 역할강화훈련프로그램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62	2004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성평등사회정착을 위한 TV드라마바로보기 및 설문조사
63	2004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나눔과 이음을 위한 지역 여성학 강사 워크샵 및 네트워킹
64	2004	언니네트워크	언니네사이트/여성네트즌과 여성단체, 소규모여성모임
65	2004	여성문화예술기획	2004 여성의 자기표현 워크샵
66	2004	여성환경연대	아시아여성환경회의 - 젠더와 물
67	2004	울산여성회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유권자의 의식조사 및 실천전략개발
68	2004	전국여성노동조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세력화를 위한 교육활동
69	2004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자신있는 삶을 위한 여성강좌의 문화체험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
70	2004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영화아카데미-2기
71	200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04 우리농업지키기 여성농민한마당
72	2004	제주여민회	여성이만드는평화의아파트-두번째
73	2004	줌마네	아줌마내공프로그램 (아줌마를위한사회적응+직업찾기+지지기반확보를위한교육프로그램및후속작업)
74	2004	춘천여성민우회	지역생활정치를 일구는 “여성자치학교”
75	2004	태백가정폭력상담소	남녀가 함께 웃는 세상을 향한 태백여성한마당
76	2004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평화운동업그레이드 “여성평화운동지도력향상및인프라형성”
77	2004	평화인권센터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끌려간 여성들, 빼앗긴 여성들” 중국거주 위안부 피해자 여성사진, 영상전시회 및 포토에세이집 발간
78	2004	한국보육교사회	2004 보육의 세기를 열거할 전국보육교사 한마당
79	2004	한국성폭력상담소	더좋은상담-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매뉴얼복제작배포
80	2004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영화제 - 차별과 빈곤을 넘어
81	2004	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 여성운동의 전망 만들기
82	2004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대학 내 반성폭력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샵 및 학내 캠페인
83	2004	한국여성연구소	여성문제 대중정론지 - 여성과 사회(15호 발간)
84	200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활동가수련회 - 우리는 희망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85	2005	경남여성회	2006 지방자치선거 여성후보 양성 프로그램
86	2005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새 정치의 희망, 여성이 일군다
87	2005	또하나의문화	북한이주여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 : 이해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88	2005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 속의 여성 바로보기
89	2005	살구여성회	양성평등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강화
90	2005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내(춘천/원주/강릉/속초) 대학생 성매매 예방캠페인 “성매매근절! 이젠 자기선언이다”
91	2005	언니네트워크	2회 언니네 페미니즘 캠프
92	2005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중,고령 여성을 위한 “원예관리사 양성과정” 개발 및 일자리 연계사업
93	2005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소년 정치캠프 “정치야 놀자!”
94	2005	용인여성상담소	용인 시민단체회원 양성평등의식확산을 위한 워크샵
95	2005	울산여성회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과 기반조성사업
96	2005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여대협 제 2회 역사기행
97	2005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여성영화제 여성영화아카데미 - 3기
98	2005	제주여성회	여성의 눈으로 역사 바로보기 “여성문화발굴단”
99	2005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교육 인형극단 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 “호호아줌마랑놀자!”
100	200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운동사 발간
101	2005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레즈비언 전시“작전N”과 레즈비언 문화생산자네트워크구축사업
102	2005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성폭력-법적 쟁점 분석 워크샵> 및 법조인, 예비 법조인 대상교재 <단행본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법담론>발간
103	200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5 여성노동자 현실과 희망사진전 및 게릴라버스 캠페인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04	2005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세계화와 새로운 여성운동의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및 심포지움
105	2005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과 대안적 가치 : 최근의 한국사회변화에관한젠더분석과전망모색
106	200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해방 60주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여성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107	2006	경남여성회	웰컴 투, 희망정치! 여성유권자가 지역을 바꾼다
108	2006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한 여성후보 발굴과 유권자 교육
109	2006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제1기 여성주의 미디어 액티비스트 양성 교육 워크숍 - 미디어, 빼앗긴 소통의 창구
110	2006	대전어민회	지역의 희망, 여성의 정치참여 - “정치횡단 프로젝트”
111	2006	여럿이함께만드는학교	주부의 힘으로 마을공동체학교 만들기 - 안성지역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Educator 양성교육
112	2006	여성환경연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건강관리사’ 양성 프로그램
113	2006	또하나의문화	북한 이주 청소년과 함께하는 여성주의 학교
114	2006	밀양시성폭력상담소	딸들을 위한 평등성문화, 성교육 교실
115	2006	언니네트워크	3회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
116	2006	1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여대협 3회 ‘여성역사기행’
117	2006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단 보수교육 및 활동지원사업
118	200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아재 양성평등 가족문화는 엄마 손으로
119	2006	서울여성의전화	여성인권영화제 “여전히 아무도 모른다”
120	2006	인천여성노동자회	근로빈곤여성 문화교실 및 리더십 훈련
121	2006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제6기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122	2006	두레방	기지촌 운동 20년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집 출판
123	2006	제주어민회	여성의 눈으로 문화, 역사 바라보기 “여성문화발굴단” - 두번째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24	2007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정치발전소	동네방네 행복정치 프로젝트
125	2007	막달레나의 집 현장상담센터	이태원지역 성매매에 대한 현장활동단체의 개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사업
126	2007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기강화 교실
127	2007	서울여성노동자회	제 2회 여성노동영화제
128	2007	서울여성의전화	제 2회 여성인권영화제 "피움 fiwom"
129	2007	언니네트워크	1회 여성주의 액션 박람회
130	2007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워크샵
131	2007	여성환경연대	여성의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건강관리사' 양성프로그램
132	2007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지부	19세 새내기여성유권자 투표참여선언 (친구들아 투표하자!)
133	2007	전국여성노동조합	비정규직 여성 힘내라! 전국 캠페인 및 이동 상담
134	200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평등문화로 농촌지역 행복지수 높이기
135	2007	제주여민회	"제주여성,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개인의 차별 기록을 중심으로
136	2007	충남성폭력상담소	어린이성폭력예방인형극 DVD 제작 및 배포사업
137	2007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창립2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 여성노동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를 재조명하다.
138	200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운동 20년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문 출판 "여성의 역사 쓰기, 새롭게 명명하기"(가제) 사업
139	200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
140	2008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제2기 여성주의 미디어 액티비스트 양성 워크숍 - 걸프렌즈, 미디어 싸워!
141	2008	대전여민회 구세군정다운집	산업형 성매매밀집지역 실태조사와 밀착형 홍보사업 "여성들의, 여성들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42	2008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시민회	인문학강좌를 활용한 여성리더 양성과정 '도봉여성희망학교'
143	2008	안양여성외전화	줌마들이 만드는 지역차별 개선 프로젝트 "우리는 평등서포터즈"
144	2008	여성문화인권센터	연극을 통한 청소년가정폭력예방교육 "ready go! 비폭력 4막 5장"
145	2008	울산여성회	여성주의지역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146	2008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광역시지부	여성, 지방의회진출 50%프로젝트 "도전하는 여성이 바꾸는 지역살림"
147	2008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 및 성평등 인식 정착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
148	2008	줌마네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줌마 전문기자단 양성 소통매체 개발 시범사업
149	2008	충남성폭력상담소	성교육전문강사인프라구축및활동지원사업 "성에 대한 즐거운 수다"
150	2008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센터	1060 "여성이반"의 역사와 세대를 잇는 깍지 끼기 "육색찬란 회동(캠프) + 깍지끼기(멘토링)"
151	2008	한국씨니어연합	노인을 위한 소비자상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152	2008	한국여성노동자회	38세계 여성의날 100주년 기념 '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문화공연'
153	2008	한국여성단체연합	38세계여성의날 100주기 기념 한국여성대회 역사자료집 제작 및 '한국여성대회가 여성운동에 끼친 영향' 토론회
154	2009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성인지예산운동 확산을 위한 도움닫기
155	2009	또하나의문화	차세대 여성주의 문화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주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156	2009	막달레나의집 현장상담센터	Writingtaewons : '후커힐', 그리고 이태원 이야기
157	2009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성(聖)스러운 성(性)이야기 - 중년여성의 성과 성역할 바로세우기
158	2009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반 성매매 운동 활성화 위한 희망 네트워크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59	2009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주의문화기행으로성평등한울산을만나다. <기행1> 고대여성을 만나러 gogo생! <기행2> 치열한 삶을 살다간 울산여성을 만나다.
160	2009	인천여성노동자회	돌봄 노동 경제공동체 모델 만들기
161	2009	좁마네	지역사회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아줌마 전문가자단 양성과 소통매체 개발 시범사업
162	2009	한국성적소자 문화인권센터	여성이반커뮤니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 "역사발굴 ,레인보우링을찾아라!"
163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6회 생존자말하기대회 : 분노와 희열을 노래하 "Speak out in Chorus"
164	2009	한국여성단체연합	2010지방선거, 여성세력화지원네트워크구축사업
165	2009	한국여성민우회	대학 내 여성주의문화 확산과 여성운동활성화를 위해 "웹20세대, 여성운동을 접속하다!"
166	2010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가출청소년의 휴게소 "1318 뽀송 아지트"
167	2010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성인지예산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성행동
168	2010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함께 행복해지는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169	2010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10 지방선거 여성후보+우권자 힘주고 힘받기 프로젝트 '여성이 똬대 여성이 똬대'
170	2010	열린복지부설 열린여성센터	홈리스·주거불안계층 여성의 부업 프로그램 "희망일터"
171	2010	용인성폭력상담소	인형극과 체험식부스를 활용한 학령전아동 거리성폭력예방교육
172	2010	일다	<풀뿌리 여성활동가로부터 듣는다> 교육사업
173	2010	제주여성인권연대	소·녀·비·행
174	2010	충남장애인지원센터부설 천안장애여성폭력상담소	성교육을 통한 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75	2010	충북여성민우회	예비직장인이바라는 성평등한 일터문화 확산을 위한 영화 "예비직장인이 예비직장인에게"
176	2010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워크샵 "성폭력가해자와 공동체의 관계를 다시 질문하다"
177	2010	한국여성노동자회	20대의 노동과 삶, 상생의 출구찾기!
178	2010	한국여성단체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세계여성행진 & 강연콘서트 '세상의 반이 걷는다. 빈곤 · 차별 · 폭력 없는 세계를 향해!'
179	201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 해 온 역사, 함께 나아갈 내일 - 여성인권 한마당
180	2011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가출 청소년 날다 "I 성 · 인 · 임 Project" (성적자기결정권과 인턴쉽훈련을 통한 임파워먼트)
181	2011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주의로 이주여성UP! 여성운동UP! -소통과 연대를 위한 아시아페미니즘학교, 아시아페미니즘캠프-
182	2011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영상자료를 활용한 성평등 교재 개발 및 제작
183	2011	언니네트워킹	비혼 세대 네트워크와 역량강화 프로젝트: 비혼 PT 나이트
184	2011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희망과연대의 하모니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185	201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여성(활동가)을 위한 웰컴투 SEXUALITY 프로젝트
186	201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 상담과 여성주의 상담의 점점 찾기": 제2회 성폭력가해자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샵
187	2011	한국여성노동자회	빈곤여성 리더십 강화 및 돌봄여성노동자 권리향상 프로그램
188	2011	한국여성단체연합	새로운 지방정치를 위한 "지방자치아카데미 및 100가지 지역여성정책 만들기"
189	2011	한국여성민우회	[2011 새롭게 쓰는 낙태이야기]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190	2011	경기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 "행복하고 즐거운 활동가!"
191	2011	경기자주여성연대	"눈빛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우리들의 여로(女路)"
192	2011	광주여성회	교육과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의 동네프로젝트
193	2011	대전여성회준비위원회	또하나의 우리집 "교육문화센터" -여성들이만 들어나가는 교육.문화공동체세상
194	2011	서울지역총여학생회모임 및 리얼퍼플	20대, 불량소녀가 되자 - 새내기를 위한 여성 리더십 캠프, 여름 페미니즘 캠프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195	201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이직접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196	20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시부 부설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엄마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가요
197	2012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정치격동기 2012] 직접행동 여성시민! 젠더감수성 충전 프로젝트
198	2012	양산가정폭력상담소	"Stop, 가정폭력!"
199	2012	한국여성민우회	2012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부기Boogie 프로젝트) _여자,몸,춤추다
200	2012	대전YWCA	성인지사업 모니터요원 양성과정
201	2012	진주여성민우회	우리 같이 있자
202	20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개발도상국 여성지원을 통한 세계 여성 네트워크 강화 사업
203	2012	(사)여성환경연대	글로벌여성환경 의제발굴과 여성환경분야 여성국제리더십 강화 - 리우+20을 위한 한국여성위원회 보고서작성 및 여성환경회의의 참가지원-
204	2012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성인지적 영화읽기 <여성영화 가이드북> 활용 워크숍 : 'gae-girl-女담'
205	2012	미혼모가족협회	세상을 향해 외친다 "결혼을 안 해도 나는 엄마다"
206	2012	경주여성노동자회	품앗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빈곤여성 자립 강화와 지역 호혜경제 활성화
207	2012	언니네트워크	'여성주의 라이브러리에 접속하다' : 여성주의 문화운동의 비전 찾기 프로젝트
208	2012	풀뿌리 여성센터 바람	"마을여성리더교육 : 풀뿌리 여성운동이 마을을 바꾼다."
209	2013	경남여성회	색깔있는 "청춘도(都)시(時)락(樂)" (도시에서청춘들이시도때도없이만나소통하는즐거움!)
210	2013	김해여성회	여성비정규직-당당한 날개를 퍼다.
211	2013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서로 손잡고 가는 풀뿌리 여성주의 정치운동 접속&지속

NO	지원 연도	단체명	사업명
212	2013	일다	'나의 페미니즘'을 소통하라
213	2013	줌마네	'집나온 여자들(가제)'에 관한 영상물 제작팀 구성을 위한 워크샵
214	2013	창원여성회	지역여성들이 만드는 여성주의 부활 프로젝트 "여성주의 물뿔, 번짐 그리고 행동"
215	201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한국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216	20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부설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엄마 힘내세요. 우리 함께 가요
217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감수성교육 매뉴얼 개발
218	2013	한국여성노동자회	돌봄을 협동조합으로 디자인하다!!
219	2013	한국여성단체연합	'포스트 2015, 한국 여성운동의 미래'를 준비 한다
220	2013	한국여성민우회	2013 "다르니까 아름답다" 캠페인
221	2013	인천YWCA	여성친화도시정책모니터링(안전한 도시생활환경부문)
222	2013	(사)여성환경연대	성평등한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과 정책제안서 발간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el. 02-336-6364 Fax. 02-336-6459 Homepage. www.womenfund.or.kr